



2023. 4

제20호 e-세계농업

- ❖ EU 식량안보 전망
- ❖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 국제 농업 정보
 - (1) 글로벌
 - (2) 미국
 - (3) 유럽
 - (4) 일본
- ❖ 세계농업브리핑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명예선임연구위원

- 편집부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상 현 연구 위 원

- 편집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정 섭 선임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경 필 선임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명 기 선임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은 미 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 자 춘 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 대 석 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 찬 희 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 영 아 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 원 규 부 연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수 석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시니어이코노미스트

경 상 대 학 교 전 상 곤 교 수

전 남 대 학 교 문 한 필 교 수

「e-세계농업」은 홈페이지(<https://www.krei.re.kr/wldagr/index.d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락처

허 장 편집위원장 (명예선임연구위원) heojang@krei.re.kr (Tel. 061-820-2357)

김상현 편집부위원장 (연구위원) sanghyun@krei.re.kr (Tel. 061-820-2280)

박동주 편집간사 (연구위원) pdj8365@krei.re.kr (Tel. 061-820-2167)



EU 식량안보 전망

허 장 *

“ 식량안보는 EU나 전 세계적으로 여러 차원(즉 가용성, 유통, 생산성 회복력 등)에서 분석되어야 할 복잡한 주제다. 본 고에서는 자급률, 수입·수출의 다각화, 가구 소비 등과 같은 몇 가지 지표를 활용해 EU의 식량안보 현황과 전망을 다루고자 한다. ”

1 종자유 자급률 증가 전망

- EU가 여러 농산물에서 자급률이 높은 것은 자연조건이 좋고 풍토, 기후가 다양하며 다른 글로벌 공급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일련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이 지난 여러 해 동안, 그리고 식량안보에 대해 이룩했던 성과 때문이기도 하다.
- 그 결과, EU는 EU 역내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품질 좋으며 안전하고 영양이 있는 식품을 풍부하게 공급해 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EU는 식량안보를 확보하였으며 글로벌 식품량 공급에도 이바지할 만큼 잉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영농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와 시장 여건 등으로 몇몇 품목(가령 열대과일, 종자유)은 EU가 자급하지 못하고 있다.
- 향후 10년 동안 EU는 대체로 밀과 보리는 자급할 수 있을 것이나, 옥수수의 경우 국제가격이 싸서 역내 생산을 늘리기보다는 수입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쌀 생산은 역내 수요에 부응할 만큼 충분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자급률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자유도 그동안 EU는 자급률이 낮았다. 유전자 변형이 아닌 콩의 경우에는, 사료 수요가 늘어나고 곡물에 비해 수익성이 높으며 윤작 영농이 흔해지면서 생산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자급률이 약간 올라가기는 할 것이다. 그렇지만 종자유 수요를 충족하려면 EU는 2032년에도 이를 계속 수입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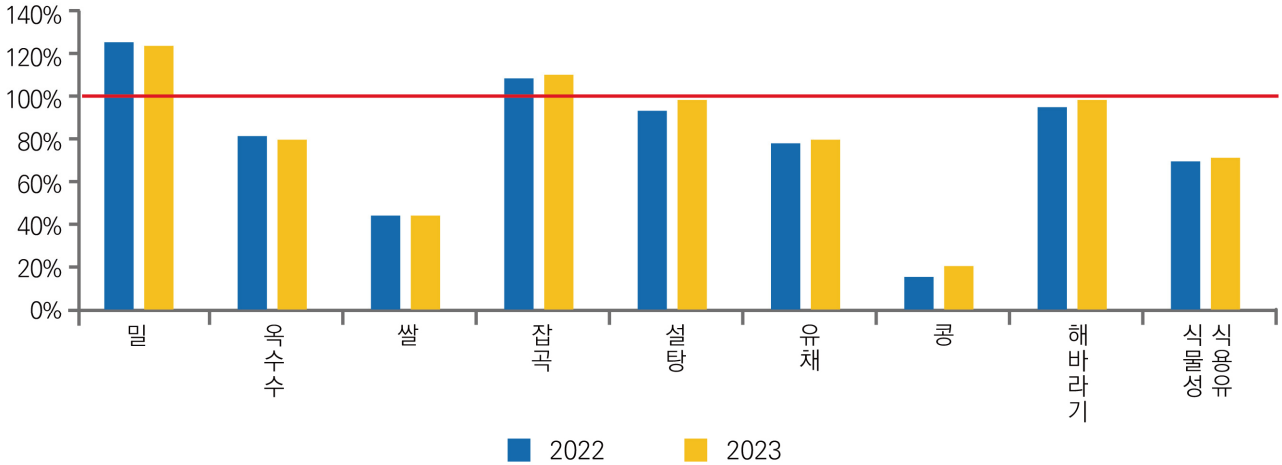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heojang@krei.re.kr)

이 글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22년 발간한 보고서(EU Agricultural Outlook: For Markets, Income and Environment 2022-2032) 중 제5장(Food Security)을 번역한 것임.



EU 식량안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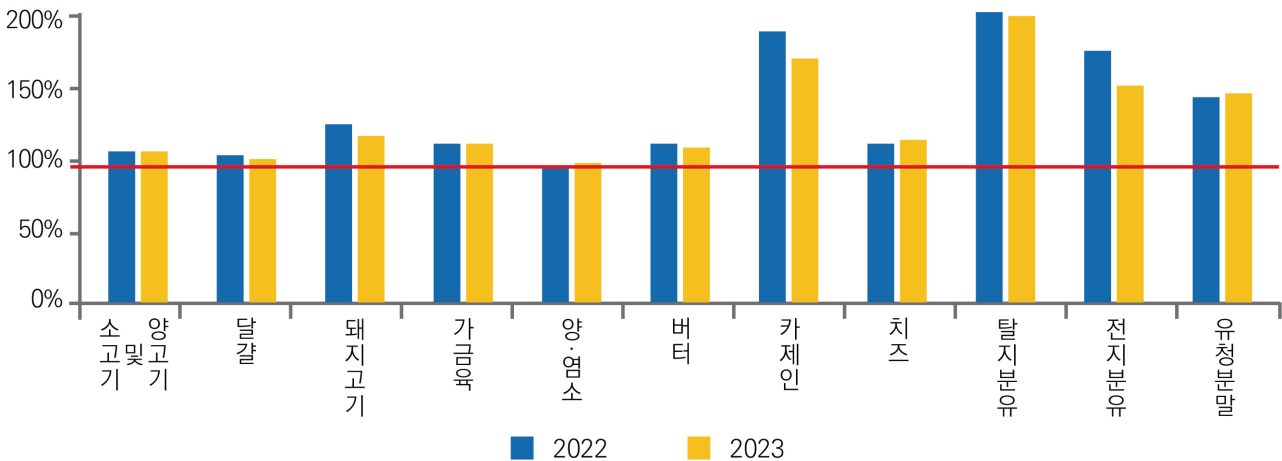
그림 1. EU 작물별 자급률(%)



2 육류와 낙농 제품의 자급률은 유지될 전망

- 축산물은 대체로 100% 이상의 자급률을 보인다(심지어 분유는 130%를 넘는다). 육류, 낙농제품(양, 염소를 제외하고)은 모두 EU가 중기적으로는 자급 상태를 유지하거나 잉여 생산까지 갈 것으로 기대된다.
- 일부 품목, 특히 전지분유 자급률은 2023년까지 약간 감소할 것이다. 육류는 2022년에도 100% 이상의 자급률을 보일 것인데 낙농제품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며, 양고기와 염소고기는 97%의 자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EU 육류 및 낙농제품 자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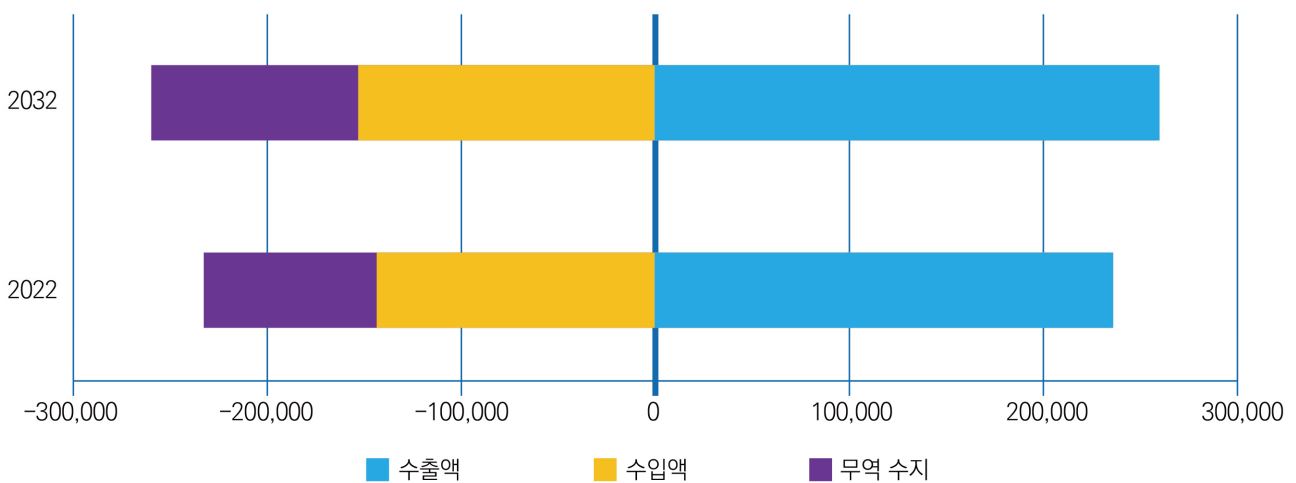


EU 식량안보 전망

3 무역량은 흑자가 확대될 전망

- EU가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의존하는 정도는 순 무역량(net trade), 즉 수출과 수입의 차이(무역수지)로 일단 파악할 수 있다. 2032년 전망을 보면, EU는 무역수지 흑자 상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2022년에 비해 21% 무역수지 흑자액이 늘어남), 고부가가치 식품과 음료, 낙농 제품의 수출액이 식물성 식용유나 동물 사료와 같은 상품의 수입액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3. EU 농식품 무역액(백만 유로)



주: MAGNET 모델의 추정치와 다루는 품목은 DG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가 EU-Agri-food trade monitoring*에서 사용하는 농식품 무역의 총합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음. 숫자는 실질가격임.

자료: https://agriculture.ec.europa.eu/international/agricultural-trade/trade-and-international-policy-analysis_en

4 수입 원산지 집중도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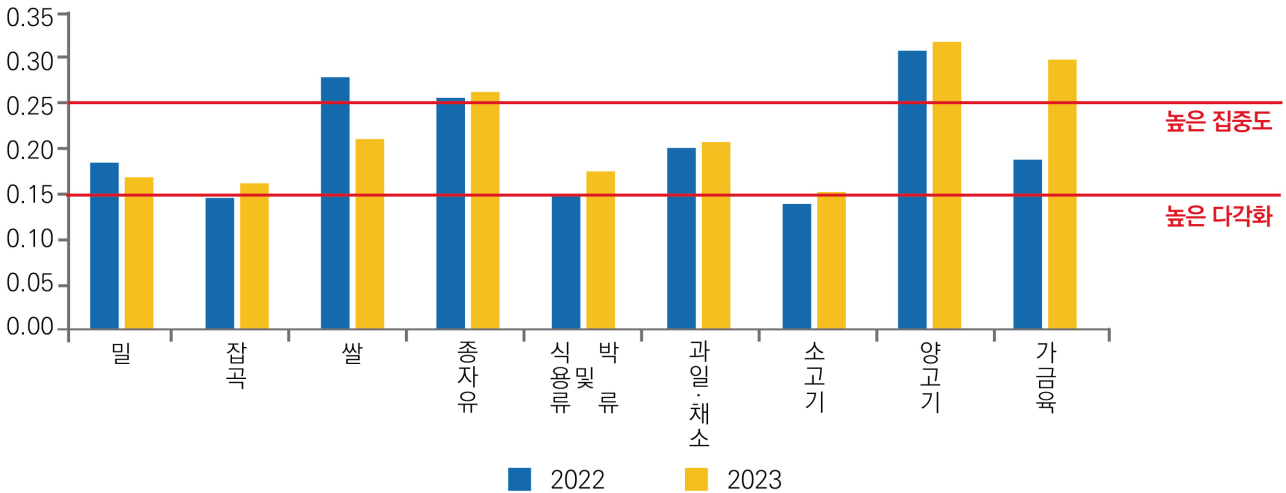
- 수입 원산지 다각화, 즉 가치사슬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허핀달 시장집중지수(Herfindahl market concentration index)를 보는 것이다. 이 지수가 낮을수록 수입은 덜 집중화되었다는 것, 즉 공급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든 품목에서 2032년까지 시간이 갈수록 다각화 정도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다만, 가금류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감소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EU가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는 품목이기도 하다. 양고기 수입 집중지수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이 앞으로 EU에 대한 주요 공급자로 남아 있는 한, 0.25를 상회할 것이다.



EU 식량안보 전망

- 종자유도 우크라이나, 남미, 캐나다가 EU에 대한 주요 공급자로 남아 있음에 따라 다른 분야보다 더 집중화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쌀은 공급자가 눈에 띄게 다각화되는 것이 관찰될 것이다(집중도가 0.07 낮아짐).

그림 4. 시장집중지수 - EU 수입



주: 수입, 수출의 시장집중지수는 실질가격으로 표시한 무역 흐름에 관한 허핀달 지수로, 15% 이하면 시장이 다각화한 것이고 25% 이상이면 집중화된 것임. 여기서는 최소한으로 구분된 국가그룹 수준에서 계산된 것이긴 하지만 개별 국가 수준에서 계산한 것은 아니므로, 국가 단위에서 계산하면 여기 나타난 숫자와는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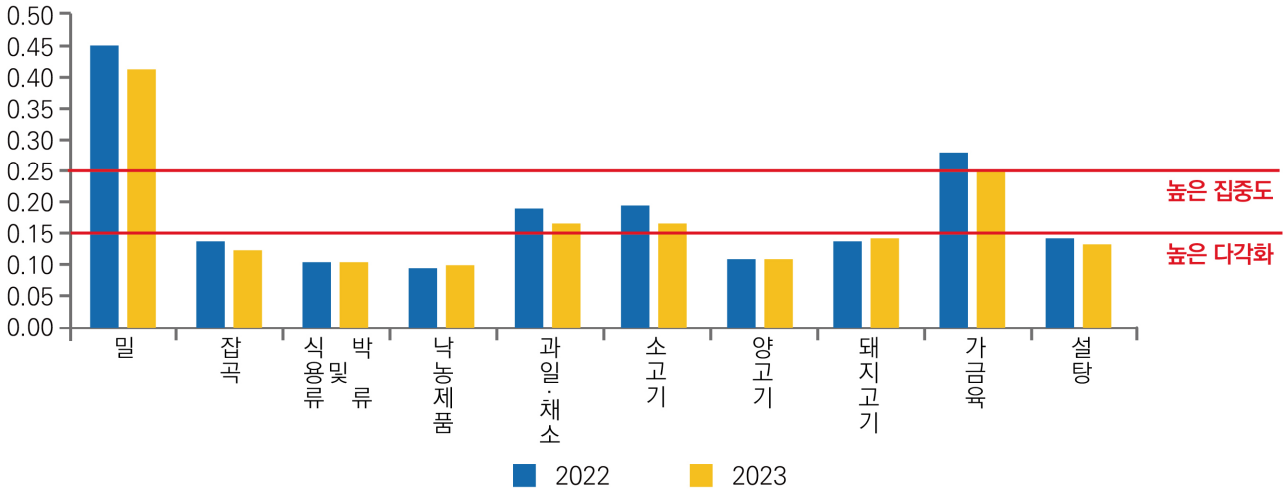
5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은 상당 수준 다각화 전망

- EU 농산물의 수출시장은 그 집중화 경향이 수입보다는 단순했는데, 2032년에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EU 외부 지역으로의 목적지가 더 다양해질 것으로 나타난다. 밀은 매우 예외적이긴 하지만 집중도 지수가 높는데, 그 이유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두 권역으로 수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권역으로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식량안보 전망

그림 5. 시장집중지수 - EU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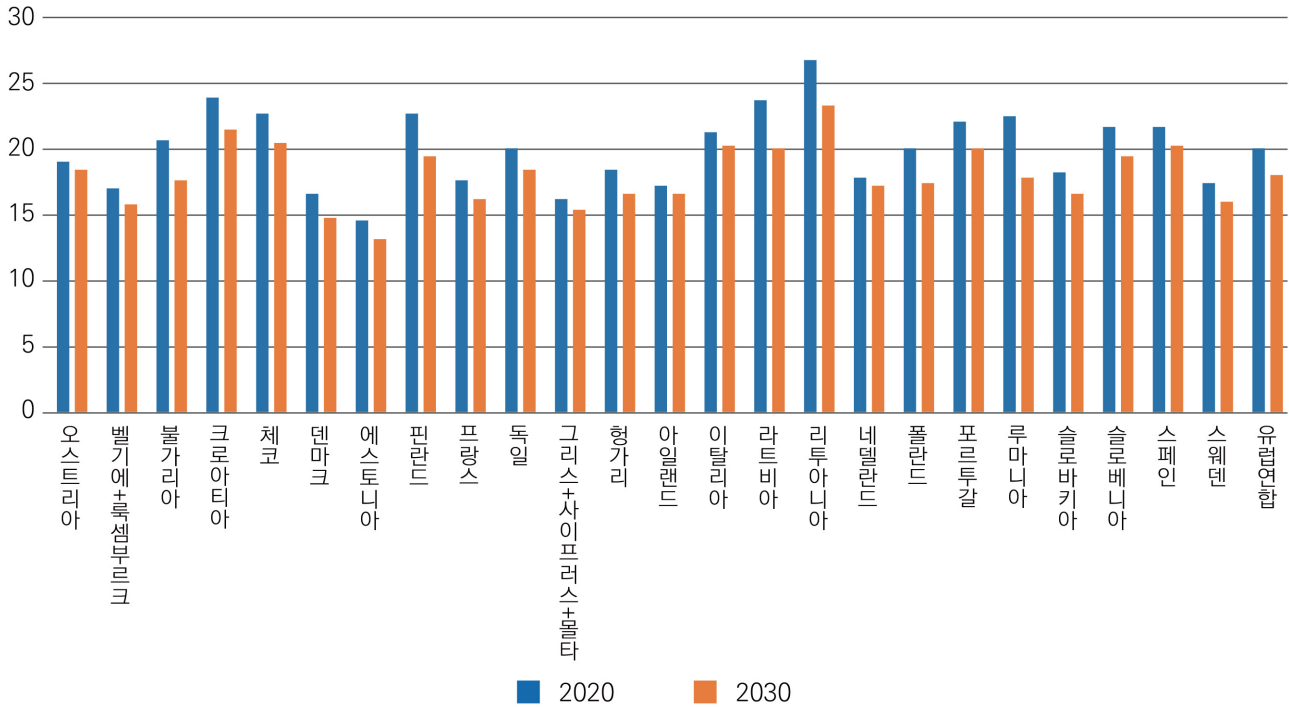
6 가구 식품 소비지출은 감소하기 시작

- 식품에 대한 가구 소비지출 비중은 최근 코로나19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전 세계와 EU 지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아래, 전망 기간(향후 10년간) 가구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품비 지출액 비중은 감소할 것이다(2%p 감소하여 18%가 될 전망).
- 보통 식품 소비지출 비중율은 EU의 동유럽 국가들이 서유럽,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소득과 구매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케이터링이나 레스토랑과 같은 식품서비스(외식)에 얼마나 더 지출하는지도 가구별 식품 구입액에 영향을 줄 것이다.
- 중기적으로는 EU 국가들의 식품 소비지출 비중은 동유럽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비슷해질 것이다. 현재 기록적으로 높은 식품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는 가구의 평균 식품 소비지출 비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식품가격이 계속 높으면 식품소비를 전체적으로 줄이기보다는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쪽으로 적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 평균적으로는 이렇지만, 식품의 인플레이션이 주는 경제적 영향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식품 구입에 쓰는 저소득 가구에 더 클 것이다. 지금의 경제 위기가 주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어떠한지 불확실하지만,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식품의 구매능력(affordability)과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EU 식량안보 전망

그림 6. 가구 소비지출 대비 식품 소비지출 비중(%)



주: 계산은 또 다른 MAGNET 모델 버전으로 수행한 것임. 식품 소비지출은 식품 서비스(케이터링, 레스토랑) 포함.

참고문헌

European Commission. 2022. EU Agricultural Outlook: For Markets, Income and Environment 2022-2032.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이현근·구해민 *

“영국이 EU에서 완전히 탈퇴(Brexit)하면서 자체 행정 입법 추진 및 다양한 규정을 신설. 영국 농식품 관련 규정들의 수시 검토를 통해 영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식품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목표 달성 노력 필요.”

1 서론

- 우리나라와 영국은 한·EU FTA를 통해서 통상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영국이 2021년 1월 1일에 EU에서 완전히 탈퇴(Brexit)하면서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브렉시트를 위한 영국과 EU 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자 협상을 추진했으며, 2021년 1월에 영국과 양자 FTA를 체결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영국으로부터 2022년 기준으로 평년 대비 46.9% 증가한 3억 9천만 달러의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양자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25.0% 증가한 추세를 보였음. 반대로, 우리나라가 영국으로 수출하는 농축산물은 7천만 달러(2022년 기준) 수준으로, 평년 대비 18.7%, 전년 대비 3.4% 증가했음(남경수 외, 2023). 우리나라의 농식품 교역액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영국과의 교역량 증가추세에 따라 그 비중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영국은 2018년 EU 탈퇴법(The EU Withdrawal Act)을 제정한 이후, 기존 EU 법률을 영국 법률로 전환하면서 약 800건의 행정 입법 제정을 완료하였음. 이 법률들은 ‘유지되는 EU 법률(retained EU law)로 불리며, 수입식품 및 농산물 분야의 모든 법률을 포함함.
- 본 보고서에서는 영국의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업체 및 관련 기관의 대응 방안 마련 차원에서, 새롭게 정비된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 및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hklee@krei.re.kr, hmku@krei.re.kr)

본 고는 2022년 1월에 발간된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United Kingdom”의 일부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임.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2 식품법(Food Laws¹⁾)

- 영국은 지난 30년 동안 식품 관련 다양한 사건·사고들(미생물, 알레르기 등)을 겪은 이후 정밀한 조사 과정을 거친 식품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공정하고 일관된 식품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은 유지되는 EU 법률의 ‘일반 식품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는 농업생명공학과 유기농 기준 등을 포함한 국제 무역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 동식물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경식품농촌부의 산하기관인 동식물 보건국(the 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APHA)이 서비스와 세부 정보를 제공함.
- 식품표준국(Food Standards Agency, FSA)의 경우, 포도주를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모든 포장제품 및 날개 판매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및 표준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있음. 또한, 식품표준국은 새로운 식품·유전자 변형 정책팀을 통해 식품 및 동물 사료용 농업 생명공학 제품 평가에 대한 정책을 주도함.²⁾
- 영국 행정 시스템은 ‘지방 당국 원칙(Home Authority Principle)’을 기반으로 함. 모든 영국 기업(수입업자 포함)은 소비자 보호, 거래 표준, 식품 안전, 라벨링 및 구성 규칙, 규제 모범 사례에 대한 조언, 지침 및 정보 등을 현지 무역 표준 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음.
 - 지방 당국 원칙은 영국기업이 처음부터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지 정부 규정은 외국 식품의 구성 및 라벨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함.
- 2014년에 제정된 식품 정보 규정(Food Information Regulation)³⁾에 따르면, 영국 현지 당국과 항만 보건 당국은 식품 사업자(수입업체, 소매업체, 식품 서비스 업체 등)가 라벨링 및 정보 제공 법률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권한이 있음.
 - 법률 위반에 관한 집행은 규정 위반의 성격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서면 경고와 개선 통지 또는 공식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1) 영국은 EU에서 탈퇴했지만, 북아일랜드는 EU 단일 시장에 남아 EU의 식품법을 준수함.

2) 식품표준국(FSA)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사료 및 식품 관련 법을 총괄적으로 관할하며, 잉글랜드의 경우 라벨링에 관한 법은 환경식품농촌부 소관 업무임. 스코틀랜드의 경우 2015년 4월에 설립한 스코틀랜드 식품표준국(Food Standards Scotland, FSS)을 통해 전반적인 식품 안전을 담당함.

3) 식품 정보 규정은 EU의 식품 정보 규정(1169/2011)에 근거하여 2014년 7월 15일에 발효됨.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1990년 영국의 식품 안전법과 2013년 식품 안전 및 위생 규정에 따라 외국 제품이 요구사항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국 수입업체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모든 합리적 예방조치를 모두 이행했음을 보여주어야 함.
 - 결과적으로 영국 구매자는 외국 공급업체에 해당 업체가 만든 식품의 개별 성분 출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이는 제품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이며 영국과 EU에서 적합하지 않거나 불법일 수 있는 성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됨.

3 식품 표시(Labeling)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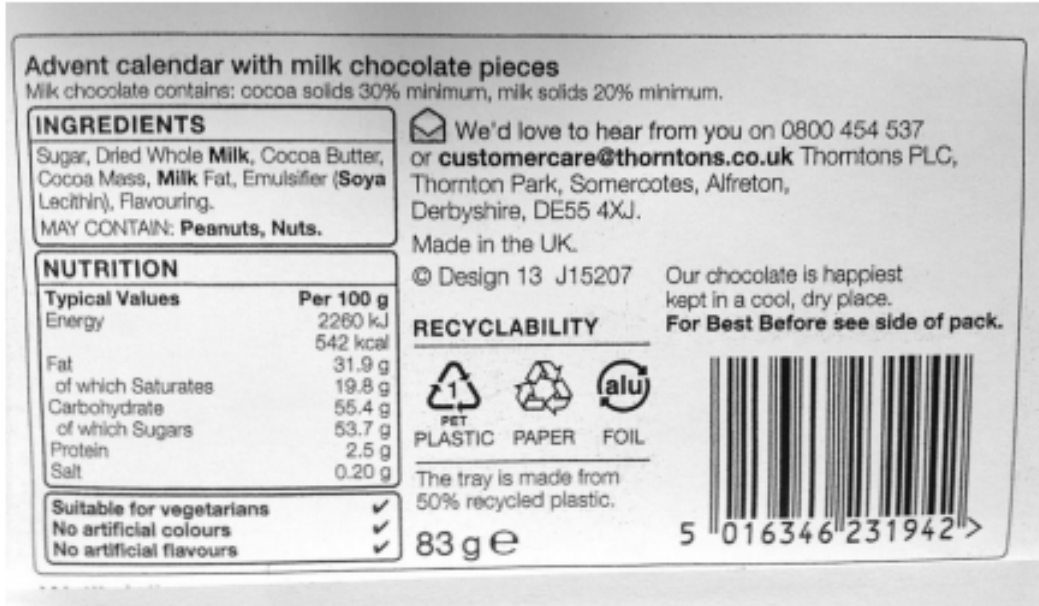
3.1. 일반 요건

- 영국에서는 식품 라벨링 정책에 대한 책임이 환경식품농촌부와 식품표준국 및 보건부에 분할되어 있음.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모두 같은 라벨링 요건을 따르지만, 각각 감독하는 지역 기관이 따로 있음.
- 영국의 식품 라벨은 눈에 띄는 곳에 영구적으로 위치해야 하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없어야 함. 영국의 식품표시 요건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함.
 - 명칭
 - 유통기한(사용기한)
 - 경고(식품에 특정 성분이 포함된 경우)
 - 순 함량 정보
 - 성분 목록(2가지 이상 성분이 포함된 경우)
 - 국가 또는 원산지(필요한 경우)
 - 제품 번호 또는 소비기한
 - 보관조건
 - 사용법 또는 조리지침
 - 제조·판매·수입업체 이름 및 주소 표기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그림 1. 영국의 식품(어드벤트 캘린더 초콜릿) 라벨 예시 |



자료: USDA(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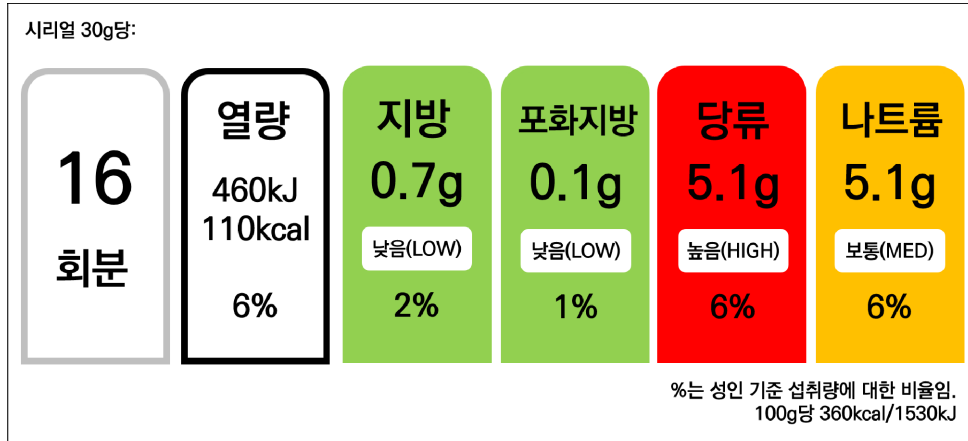
- 라벨을 표시할 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은 성분(Ingredients) 목록에 굵은 글씨로 표시해야 하며, 라벨링 요건 준수를 위해 기본 영양 정보가 'Nutrition'에 표기되어야 함. 또한, 2022년 10월 1일부터 영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라벨에 영국 내 식품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야 함.⁴⁾
 - 라벨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영국 수입업자가 부착해야 하며, 영양 강조 표시(Nutrition claim) 및 건강기능강조 표시(Health claims) 정책은 EU에서 지속해온 정책을 따름. 제품에 따라 라벨 변환이 복잡할 수 있기에 수입업자는 식품법 및 라벨링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좋음.
- 또한, 법적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영국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들은 제품에 자발적으로 신호등 표시(traffic light labeling) 시스템을 사용하여 포장 전면에 색으로 구분된 영양 정보를 표시하고 있음.
 - 신호등 표시 시스템은 식품의 지방, 포화지방, 소금, 당류 및 나트륨 함량 수준을 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시스템임. 단, 열량에는 색을 표시하지 않음.

4) 북아일랜드의 경우 북아일랜드 또는 EU 식품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야 함.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그림 2. 시리얼 포장 전면의 신호등 표시 예시



자료: USDA 자료 재가공.

- 영국의 신호등 시스템의 기준값은 EU의 영양·건강 규정(EC 1924/2006)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식품과 음료별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식품의 경우, 지방은 식품 100g당 3.0g, 포화지방은 1.5g, 당류는 5.0g, 나트륨은 0.3g이 최저 기준임(표 1 참고). 음료의 경우에는 식품 기준보다 조금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표 2 참고).

표 1. 영국 식품류 기준 신호등 시스템 기준

구분	낮음(LOW)	보통(MEDIUM)	높음(HIGH)	
			25% 이상	30% 이상
색 표시	녹색	황색	적색	
지방	≤3.0g/100g	3.0g < X ≤ 17.5g/100g	>17.5g/100g	>21g/100g
포화지방	≤1.5g/100g	1.5g < X ≤ 5.0g/100g	>5.0g/100g	>6.0g/100g
당류(총량)	≤5.0g/100g	5.0g < X ≤ 22.5g/100g	>22.5g/100g	>27g/100g
나트륨	≤0.3g/100g	0.3g < X ≤ 1.5g/100g	>1.5g/100g	>1.8g/100g

자료: 영국 정부(<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ront-of-pack-nutrition-labelling-guidance>). 검색일: 2023. 3. 27.

- 설탕의 경우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 “설탕 무첨가”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식품에 설탕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식품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당분 포함’이라는 별도의 표시를 추가해야 함.
- 예를 들면, ‘이 제품에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지만 자연 발생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색상 코드는 이 제품의 당분 총량을 반영합니다. 이 제품에는 당분이 첨가되지 않았지만, 우유, 건포도 등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함.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영양소 성분은 반드시 열량, 지방, 포화지방, 당류와 나트륨 순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디자인은 마름모꼴을 유지해야 함. 또한, 대부분 제품에서 가로 형태로 신호등 시스템을 적용하지만, 일부 세로형 제품에서는 세로로 제시할 수도 있음. 영양소 색은 글씨나 테두리가 아닌 음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Pantone 또는 CMYK 기준으로 정해진 색을 사용해야 함.⁵⁾

표 2. 영국 음료 기준 신호등 시스템 기준

구분	낮음(LOW)	보통(MEDIUM)	높음(HIGH)	
			25% 이상	30% 이상
색 표시	녹색	황색	적색	
지방	≤1.5g/100mL	1.5g < X ≤ 8.75g/100mL	>8.75g/100mL	>10.5g/100mL
포화지방	≤0.75g/100mL	0.75g < X ≤ 2.5g/100mL	>2.5g/100mL	>3g/100mL
당류(총량)	≤2.5g/100mL	2.5g < X ≤ 11.25g/100mL	>11.25g/100mL	>13.5g/100mL
나트륨	≤0.3g/100mL	0.3g < X ≤ 0.75g/100mL	>0.75g/100mL	>0.9g/100mL

자료: 영국 정부(<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ront-of-pack-nutrition-labelling-guidance>). 검색일: 2023. 3. 27.

3.2. 환경 메시지

- 영국 정부와 공급망은 식품 생산과 관련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특히, 플라스틱과 같은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주제임. 위 <그림 1>에서 초콜릿 어드벤처 캘린더의 라벨과 같이 포장재의 원료 자체가 재활용 플라스틱인 점과 플라스틱, 종이와 호일의 재활용 표시를 유의해야 함.

3.3. 기타 특정 식품표시 요건

- 영양소와 건강에 대한 강조 표시와 글루텐 프리(gluten free)와 같은 특수 목적 식품 강조 표시에 대한 제한 외에도 유전자 변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유기농으로 판매되는 식품, 알코올음료, 육류 및 냉동식품에 대한 추가적인 라벨링 요건이 있음.
- 유전자 변형 식품과 포도주, 맥주 등의 알코올음료는 식품표준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증류주의 경우 환경식품농촌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맥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모든 알코올음료는 알코올 함량이 1.2% 이상이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함.

5) Pantone 기준으로 녹색은 PMS 375, 황색은 PMS 143, 적색은 PMS 032임. CMYK 기준으로 녹색은 C: 48%-M: 0%-Y: 94%-K:0%, 황색은 C: 0%-M: 36%-Y: 87%-K:0%, 적색은 C: 0%-M: 90%-Y: 86%-K:0%임.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유기농 식품의 경우 2021년 12월 12일까지 EU 유기농 인증이 유효했으나, 이후 기존 EU의 규정과 유사한 새로운 유기농 규정이 마련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15년 2월 1일에 EU와의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organic equivalence arrangement)이 발효되었음(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⁶⁾
 - 영국 정부에 따르면 유럽 내 국가를 제외한 제3국 중에서 영국과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을 맺은 13개 국가가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음.
 -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는 다섯 개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공 농식품(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for use as food)만 협정이 적용되고 있음.

표 3. 영국의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국가(제3국)와 품목 범위

국가	품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헨티나 • 호주 • 캐나다 • 칠레 • 코스타리카 • 인도 •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 스위스 • 튀니지 • 미국 • 뉴질랜드 •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가공하지 않은 식물 • B 산 동물, 가공하지 않은 동물성 상품(꿀, 밀랍 포함) • C 수산물, 해초 • D 식용 가공 농식품 • E 사료용 가공 농식품 • F 종자 등

자료: 영국 정부(<https://www.gov.uk/guidance/importing-and-exporting-organic-food#importing-organic-food-from-non-eu-countries-to-great-britain>). 검색일: 2023. 3. 27.

- 환경식품농촌부에 따르면, 제품의 유기농 성분이 최소 95% 포함되어야만 유기농 라벨을 붙일 수 있음. 또한, 유기농 라벨에는 영국의 유기농 관리 기관에 등록되어 인증을 받은 관리 기관의 코드 번호와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해야 함.
 - 한국을 포함하여 비(非)EU 국가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영국 유기농 수입 시스템을 통해 검사 인증서(Great Britain Certificate of inspection, GB COI)를 받아야 함.⁷⁾
- 영국은 채식주의자와 비건, 식물성 육류 및 유제품 대체재 라벨링에 대한 특정 식품표시 요건은 없으나, 식물성 제품에 치즈와 버터, 우유와 같은 유제품 이름의 라벨을 붙일 수 없다는 EU의 규정을 따름.

6) 영국이 2021년 1월 1일에 EU에서 완전히 탈퇴하면서 우리나라는 영국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별도의 협정을 맺음. 한편, 우리나라와 EU 간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7) Kati의 '유기농 식품의 수출입 지침 업데이트(<https://www.kati.net/>)' 내용을 참고함(검색일: 2022. 11. 28.).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4 포장 규정

- 포장 관련 규정(SI 2006/659)은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의 담당 하에 국립측정사무소(National Measurement Office, NMO)에서 관리하고 있음.
 - 포장 폐기물의 경우 환경식품농촌부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가 담당하고 있음.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포장 폐기물 규정의 이행과 2003년 개정된 영국의 국내 포장 규정을 관리함.
 - 환경식품농촌부는 2005년 생산자 책임 의무 규정을 통해 영국 폐기물 정책 및 재활용 관련 국내 규정 시행의 모든 측면을 담당함.
- 영국은 식품과 접촉되어 오염될 수 있는 잉크 및 접착 라벨 등과 같은 포장 성분을 2012년 식품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소시지 껍질처럼 식품 일부이며, 식용으로 사용되는 코팅 물질은 포함하지 않음.

5 식품 첨가물 규정

- 영국은 색소, 방부제, 향산화제, 감미료,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등과 같이 허가된 식품 첨가물에 대해 최대 허용치를 책정하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을 운영함.
 - 영국의 식품 첨가물 규정은 식품표준국에서 관리하는데, 가장 최근인 2022년 2월 7일부터 EU와 북아일랜드에서 이산화티타늄(TiO₂)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음.
 - 전환 기간(transition period)이 6개월 주어졌으며, 이 기간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2022년 8월 7일부터는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었음. 자세한 식품 첨가물 허용 목록은 영국 식품표준국에서 알아볼 수 있음.⁸⁾
- 영국은 독성 위원회(Committee on Toxicity, COT)로 알려진 전문가 패널을 통해 새로운 식품 첨가물을 평가하고 승인함.

8) 영국 정부. (<https://www.food.gov.uk/business-guidance/approved-additives-and-e-numbers>). 검색일: 2023. 3. 27.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영국에 판매할 목적의 상품에서 <표 4>와 같이 6가지 식용색소 중 하나라도 포함하는 식품은 ‘아동의 활동 및 주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함.
- 이를 위해 제조업체들은 해당 식용색소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제품을 새로 만들거나, 비트 뿌리를 사용하는 등 더 자연스러운 색상을 사용하고 있음.

표 4.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색소

구분	기타 명칭
Quinoline Yellow	Food Yellow 13, FD&C Yellow No.10, Acid Yellow 3
Sunset Yellow	Orange Yellow S, FD&C Yellow 6
Ponceau 4R	Cochineal Red A, C.I. Acid Red 18, Brilliant Scarlet 3R, Brilliant Scarlet 4R
Tartrazine	FD&C Yellow 5, Acid Yellow 23, Food Yellow 4
Azorubine/Carmoisine	Food Red 3, Azorubin S, Brilliant Carmoisin O, Acid Red 14
Allura Red AC	Food Red 17, FD&C Red 40

자료: USDA(2022).

6 농약 및 기타 오염 물질

- 영국에서는 화학물질규제부(Chemical Regulation Directorate, CRD)와 환경식품농촌부 잔류농약 전문가 위원회가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농약을 관찰함.
 - 그 결과는 매년 게시되며,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의 살충제 섭취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 CRD 전문가의 평가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짐.
- 2013년 식품 오염 물질 규정에서는 2010년 식품 오염 물질 규정을 폐지하고 EU 집행위원회 규정(650/2012, 1258/2011, 1881/2006)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개정되었음. 본 규정에는 질산염, 곰팡이, 다이옥신, 중금속 및 주석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음.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7 기타 규정

7.1. 증명서

- 검역증명서는 영국에 수입되는 동물성 제품에 필수 요건이며, 식물 검역증명서는 영국에 해충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식물 제품에 요구되는 요건임. 동물성 제품은 환경식품농촌부의 담당하에 있으며, 자세한 요건은 동식물보건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APH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7.2. 검역

- 일부 제품의 경우 특정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육류와 유제품 및 생선과 같은 동물성 제품은 항구나 공항과 같은 국경 통제소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으며, 일부 식물 재료나 동물 원료가 아닌 기타 식품에도 유사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
- 영국은 서류 심사에서 검역증명서 및 실험 테스트 결과의 진위를 확인하고 위탁판매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역 서류의 세부 사항과 교차적합 검사를 시행함. 또한, 상품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라벨링 및 건강 성분 표시도 확인하며, 포장을 개봉하고 제품 검사를 통해 안전성 여부와 인증받은 제품과 같은지에 대해 확인함.
 - 검사관은 해당 제품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를 위해 표본을 채취할 수도 있음. 영국은 특정 동물성 제품에 대한 식물 검사 기준을 규정하는 Commission Decision(94/360/EC)과 EU 규정(2019/2007)을 따름.
 - 일반적으로 물리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최소 화물 수는 포유 육류 및 육가공품의 경우 20%, 가금육/꿀/유제품 등은 50%, 비식용 기타 동물성 제품은 1~10% 수준임.
- 영국이 채택한 EU 규정(EC 669/2009)에 따른 특정 기타 고위험 사료 및 비동물성 식품에 대한 동일성 및 물리적 검사 빈도는 같은 규정(EC 669/2009)의 부록 I에서 찾을 수 있음.⁹⁾ 또한, 식품 안정상의 이유로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수입 조건이 요구되기도 함. 이는 항만 보건 공무원이 특정 국가의 특정 제품에 대한 추가 검사 및 샘플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음.

9) EU 규정 669/2009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통합한 2019/1703(Document 32019R1793, 2019년 10월 29일 시행)이 새로 마련됨(<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9R1793>, 검색일: 2023. 5. 8.).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7.3. 시설 등록

- 영국은 EU의 승인 시설을 준수했으나 브렉시트 이후(2021. 1. 1.) 영국에서 승인된 시설에서 처리된 제품만이 영국으로 수입될 수 있음.

7.4. 제품 등록

- 영국에서 특정 규제 식품 및 사료 제품(사료 첨가제, 특정 영양용 사료, 향료, 식품 첨가물, 식품 접촉물질(플라스틱), 식품 효소, 훈제 향료, 노블푸드 등) 판매 시 사전에 승인이 필요함. 노블푸드는 유럽 내 소비되지 않았던 식품의 시판 전 안정성 평가를 위해 1997년 5월 도입되었음. 노블푸드 규정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기에 절차를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식품표준국 홈페이지¹⁰⁾에서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8. 시사점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해 한·영 교역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었고,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1년 1월 1일 한·영 FTA가 발효되었음.¹¹⁾ 우리나라의 對영국 농식품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양자 간 FTA 발효 이후에도 증가추세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영국은 EU에서 탈퇴하면서 자체 행정 입법을 추진하고, 다양한 규정들을 신설하였음. 따라서, 영국으로의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증가와 영국의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는 EU에서 탈퇴한 후 EU 식품법을 바탕으로 한 영국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라 EU 식품법이 적용되었음.
 - 영국은 4개 지역별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어 공통된 식품표시 요건뿐만 아니라 파생된 지역별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국의 일반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지역별 차이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영국에서는 수출국들이 영국의 수입업체 또는 관세 업체와 협력하여 영국 농식품 수입 요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규정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음.¹²⁾

10) 영국 정부. (<https://www.food.gov.uk/business-guidance/regulated-products/novel-foods-guidance>). 검색일: 2023. 3. 27.

11) 이현근 외(2019)의 「한·EU FTA 이행 8년, 농식품 교역과 한·영 FTA 추진」을 참고함.

12) 해양수산개발원(2021)의 「2021 영국 라벨링 제도」를 참고함.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또한, 영국 수출 시 원산지나 주소 표시 규정 등과 같은 변경사항을 파악해야 하며, 이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둘째, 영국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라벨에는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신호등 표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신호등 표시 시스템은 식품과 음료 제품에 별도의 기준이 있으며, 열량, 지방, 포화지방, 당류와 나트륨 함량과 평균 성인 일일 섭취량 대비 비중을 기준으로 세 가지 색을 적용해 소비자가 상품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임.
 - 우리나라 농식품도 영국으로 수출할 때는 영국 내 판매 제품과 경쟁을 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신호등 표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영국의 기준에 맞는 추가적인 성분분석, 디자인 및 제품 개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영국과의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의 범위가 현재 식용 가공 농식품으로 한정되어 있음. 다른 나라와 같이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넷째, 오래전부터 화두가 되어온 기후변화와 최근 추진되는 IPEF 등의 흐름을 볼 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통상 부문에서도 국가별 규제가 심화할 것으로 보임.
 - 영국에서도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과 그 자체의 생산방식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이제는 국내 판매 제품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제품의 포장재도 재활용 가능성, 친환경성, 에너지 절감 정도가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명확해 보임.
 - 따라서, 포장재로 인해 수입 규제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지금까지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에 대해서 검토하였음. 영국의 규정은 '유지되는 EU 법률'로 불리는 만큼 기존 EU의 규정과 비슷한 면이 많음. 다만, 영국은 지방 행정 시스템에 따라 지역별 규정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영국에서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들이 다소 있어서 관련 규정들의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영국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영국에서의 수입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임.
- 이러한 노력이 모여진다면, 영국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농식품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고,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 남경수, 채상현, 최미라, 김경호. 2023.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2022년 4분기)』. 제10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한-유럽연합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 이현근, 채상현, 유주영. 2019. 『한·EU FTA 이행 8년, 농식품 교역과 한·영 FTA 추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1. 『2021 영국 라벨링 제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USDA. 2022.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United Kingdom. USDA.

〈참고사이트〉

- 영국 정부. (<https://www.gov.uk/guidance/importing-and-exporting-organic-food#importing-organic-food-from-non-eu-countries-to-great-britain>). 검색일: 2023. 3. 27.
- 영국 정부. (<https://www.food.gov.uk/business-guidance/approved-additives-and-e-numbers>). 검색일: 2023. 3. 27.
-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ront-of-pack-nutrition-labelling-guidance>). 검색일: 2023. 3. 27.
- 영국 정부. (<https://www.food.gov.uk/business-guidance/regulated-products/novel-foods-guidance>). 검색일: 2023. 3. 27.
- 유럽연합 법령정보,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9R1793>), 검색일: 2023. 5. 8.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11. 10.
- KaTi. (<https://www.kati.net/>). 검색일: 2022. 11. 28.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글로벌 농업·농촌·식품 동향



1

식량 불안정과 OECD 국가들의 식량지원 프로그램¹⁾

1.1. 식량 불안정(Food Insecurity)이란?

- FAO는 식량 불안정을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및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품에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
 - 식량안보에는 4가지 특성이 있으며, 식량안보가 확보된 상태는 4가지 특성이 모두 동시에 발현되어야 하며, 이 중 하나의 특성이 불충족 시 식량 불안정 상태인 것으로 간주
 - **[가용성; Availability]** 식량의 생산 재고 무역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물리적인 식량의 존재
 - **[접근성; Access]** 영양 있는 식단을 영위하기 위한 충분한 양, 품질, 그리고 다양한 식품을 획득이 가능한 상태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의 경제적 물리적 자원을 포함
 - **[이용성; Utilisation]**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분을 얻기 위해 가용성이 있고 접근 가능한 식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식품 구매 준비소비 및 배분에 대한 결정을 포함)
 - **[안정성; Stability]** 상기 3가지 특성(가용성, 접근성, 이용성)이 안정적으로 지속
- 분쟁, 기후 변동성, 경제 침체 등 식량 불안의 원인은 다양하며, 빈곤과 불평등은 이러한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

1.2. 식량불안정(Food Insecurity) 현황과 영향

- OECD 국가의 식량 불안정 수준은 개도국보다는 덜하지만 식량안보와 관련된 SDG 목표에 미달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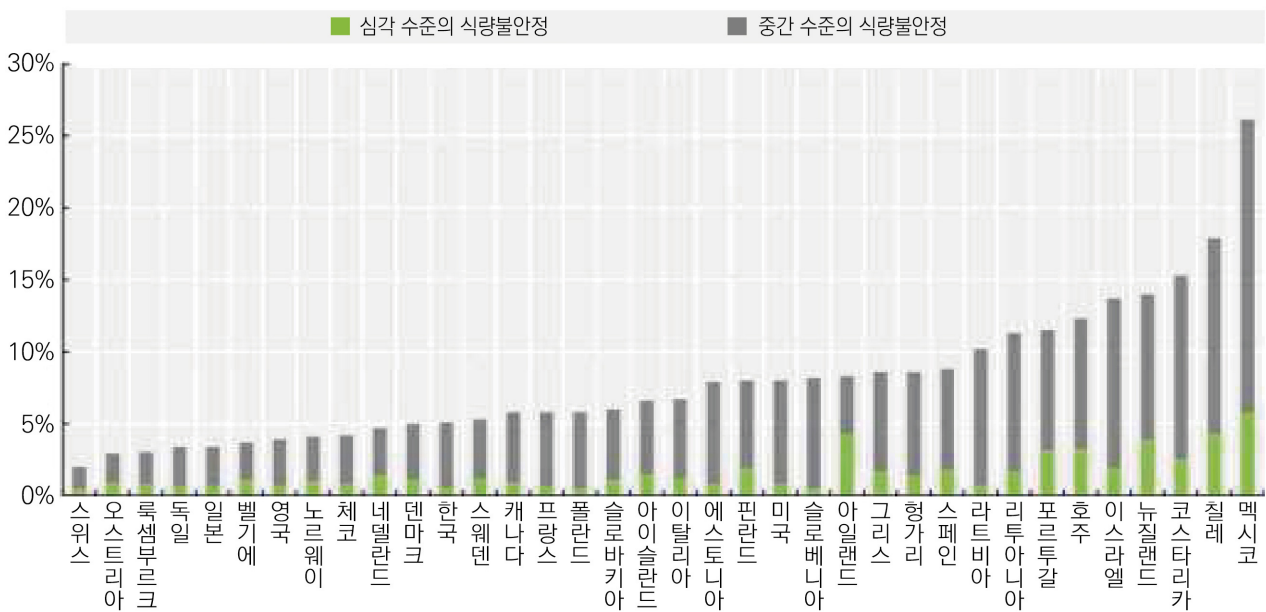
1)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식량불안정(Food Insecurity)과 OECD 국가들의 식량지원 프로그램”(2023.3.13.)(출처: OECD ‘FOOD INSECURITY AND FOOD ASSISTANCE PROGRAMMES ACROSS OECD COUNTRIES, 2022.9.22. 발간’)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2018-2020년 기간 동안 OECD 인구의 평균 7.5%가 중간 수준의 식량 불안정을 경험했으며, 3%(스위스)에서 35%(멕시코) 사이로 나타남.
- 동 기간동안 OECD 인구의 심각 수준의 식량 불안정은 0.5%에서 13% 사이로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남.

OECD 국가의 식량 불안정



OECD 국가의 취약계층은 중간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영향

- 경제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식량 불안정에 특히 취약한 경향
 * 실직(Job losses)이 식량안보 상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편부모 가구·저소득 일부 인종 그룹과 원주민 등이 고위험군으로 분류

식량 불안정은 사람들의 건강과 경제에 영향

- 빈곤과 식량 불안정에 직면한 사회경제적 집단은 건강과 경제적 결과 측면에서 종종 해로운 선택에 노출되며, 학업 및 사회적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
- 식량 불안정은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고, 아동 건강에 장기적으로 악영향

- 식량이 불안정한 가정의 성인과 청소년은 식량이 확보되지 않은 가정에 비해 에너지, 다량 영양소 및 미량 영양소 섭취가 더 적다고 보고
- 유아기의 식량 불안정과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의 천식 및 우울증 위험 증가의 상관 관계를 발견
- 식량 불안정과 불리한 아동기 경험, 불안, 우울증 및 비만의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이 발견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1.3. 정책 대응

- OECD 국가들은 지리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식량 불안정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
 - 현금 지원을 통해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의 △생계지원 프로그램과 급식, 바우처, 꾸러미 등의 방식으로 △식품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2가지로 구분
 - 식품 지원 프로그램은 충분한 음식에 접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식량 불안정 제거를 목표로 하며, 영유아, 어린이,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에 중점

| 식량 불안정에 따른 정책 |

프로그램	목적	제공 방식	식량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
생계 지원 프로그램	생계 지원	현금 지원	빈곤 감소를 통한 간접
식품 지원 프로그램	취약 계층에 식량 제공	식사 제공	직접
		식품 바우처 제공	직접
		식품 꾸러미 제공	직접

- 식품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또는 국가 차원의 공공 영역에서 추진되기도 하며, 시민 사회에서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 중
- 식품 지원 프로그램은 식량의 접근성 및 안정성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일부는 영양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추진
- 식품지원프로그램 중 △학교급식, △식품바우처(Food voucher), △푸드뱅크(Food Bank) 등 3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설명
- **[학교급식 프로그램]** 정부에 의한 학교급식 제공은 가구의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어린이들이 교육 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
- FAO는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
 - 다양한 운영 모델(조달 및 준비 포함)을 사용하여 영양 교육, 구충 및 영양 보충과 같은 보완적인 활동을 동반
-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식량 불안정을 줄이고 어린이의 복지, 행동 및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불평등을 해결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전 세계 161개국에 학교 식사 프로그램이 있으며, 전 세계의 많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전국 학교 아침 식사 및 점심 프로그램을 통해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칠레, 프랑스 및 미국의 학교급식 프로그램 중 일부는 학생 음식 선택 및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일 및 채소의 소비를 장려하는 국가 영양 지침 및 요구 사항이 반영
 - FAO는 국가와 프로그램별마다 다른 목표와 대상 그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 대한 영양 표준은 획일화되기 어려우나, 포화 지방, 설탕 및 나트륨의 상한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 **[식품 바우처]** 식품 바우처 프로그램의 목표는 취약성과 식량안보 상황에서 가구를 위한 식품 접근성을 향상
 - 식품 바우처는 일반적으로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음식이나 특정 유형의 식품을 구입하는 데 제한되어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모든 상점, 시장 또는 지정된 상점에서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
 - 칠레의 고등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식품 장학금(Food Scholarship for Higher Education)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하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 ※ 지원 방식은 학생들에게(소득 하위 60%) 온 오프라인 식품/외식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EBT 카드, US \$ 2/일)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등록된 소매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여 식사를 준비하거나 외식 체인점이나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건강식을 구입
 - 한국의 식품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FVAP)은 시범사업 중이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식품 쇼핑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EBT 카드)로 제공
 - ※ 이 방식은 식품 소비를 증가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바우처의 목적 외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낮은 운영 비용과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 데이터 분석을 가능
- **[푸드뱅크]** 푸드뱅크는 식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수집하고 배포하는 비영리 단체
 - 푸드뱅크의 운영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에서 일부 지원
 - 현물 기부(In-kind food donations)
 - (EU) 유럽 취약계층 원조 기금(Food Scholarship for Higher Education)을 통해 식품을 구매한 다음 파트너조직에 기부하고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현지에서 배포하는 방식이며, 2019년에는 1,250만 명이 수혜
 - (미국) 농무부(USDA)의 식품 영양 서비스(FNS)가 운영하는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실시되며,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을 USDA에 의해 구매되어 주에 분배되고, 주 차원에서 설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식품은행에 의해 가구에 제공. 2018년 7억 1,110만 달러에서 2019년 1,655만 달러로 증가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식품 시스템 이해 당사자에 의한 식품 기부 촉진(Facilitation of food donation by food systems stakeholders)

- 푸드뱅크에 대한 식품 기부는 정부에 의해 장려 및 권장 중
- 프랑스에서 식품 기부는 세금 감면(기부금 가치의 60%)
- 프랑스※, 캐나다 및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농업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을 기부하고 세금 감면 지원 수혜
 - ※ 프랑스에서는 농업부가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Solaal'에 의해 촉진
- 일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유발된 취약계층의 식품의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푸드뱅크에 기증하는 식품의 운송 및 배송 비용에 대한 지원과 식품 기부를 촉진하는 홍보를 강화

■ 푸드뱅크는 식량 손실과 폐기물 감소에 기여

- 글로벌 푸드뱅크 네트워크(GFN)는 푸드뱅크의 활동으로 2019년 기준 268 백만 톤의 식품의 손실과 폐기물 발생을 막고, 이를 통해 10억 54백 만kg의 온실가스 배출 방지에 기여 추정
- 유럽국가들과 미국에서는 식품 손실 및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해 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 확대

1.4. 정책제언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다양한 식품지원 프로그램을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동 프로그램과 관련한 식량안보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정책 피드백과 파생적으로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에는 한계
- 정기적으로 식량안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교하여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타겟팅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
 - 적격 가구의 실제 참여, 프로그램의 영양 개선 결과, 공공 지출 및 조직 측면의 효과·효율성에 중점 두어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촉진 가능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3.2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원자재 시장에 미친 영향²⁾

1. 개요

- 러-우 전쟁으로 세계경제 및 세계교역이 둔화되었으며, 원유, 가스 등 에너지와 니켈, 밀 등 원자재·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여 각국의 물가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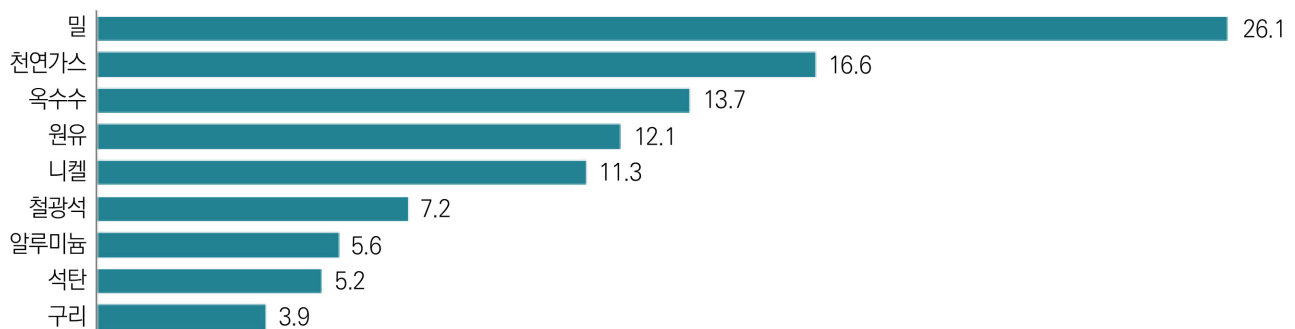
2022년 전망	당초 전망	실제(예상치)	비교
세계 경제성장(%)	4.4	3.4	-1.0%p
세계교역(물량,%)	4.7	3.5	-1.2%p
세계 소비자물가(%)	4.2	8.8	4.6%p
원유가격(\$/배럴)	76.7	99.0	29.1% 상승
천연가스(\$/MMBtu)	3.84	6.54	70.1% 상승

- 러시아 주요 36개 교역국을 분석한 결과, 중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등이 교역 확대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었고, 특히 중국은 한국, 독일의 대러 제조상품 수출을 대체하면서 자동차·부품, 타이어, 굴착기, 트랙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수출을 크게 증가

2. 주요내용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유, 천연가스, 금속, 곡물 등 다양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는 밀(세계공급의 26.1%), 천연가스(16.6%), 옥수수(13.7%), 원유(12.1%), 니켈(11.3%) 등 주요 원자재 생산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

| 식량 불안정에 따른 정책 |



자료: BP(에너지), USGS(금속), USDA(곡물)

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발간한 “러-우 전쟁 1주년, 주요국 영향 분석”(TRADE BRIEF, 2023.2.2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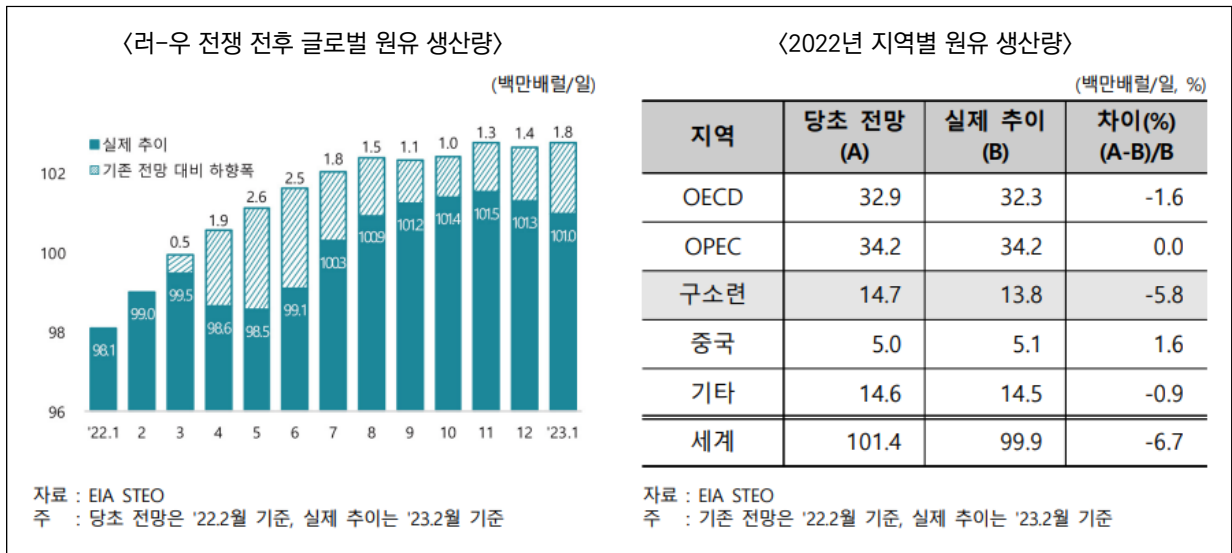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원유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2022년 세계 원유 공급량이 당초 전망 대비 1.3% 감소

- 러-우 전쟁 이전(2022.2월 기준)에는 2022년 세계 원유 공급량이 일평균 101.2백만 배럴로 전망 되었으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원유공급이 감소하면서 2022년 실제 일평균 공급량은 1.3% 감소한 99.9백만 배럴에 불과

- 지역별로는 러시아가 속한 구소련 지역의 원유 생산량이 당초 전망 대비 5.8%로 감소하면서 세계 원유생산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당초 전망 대비 실제 원유 생산량(%): 중국 +1.6, OPEC 0.0, OECD -1.6, 구소련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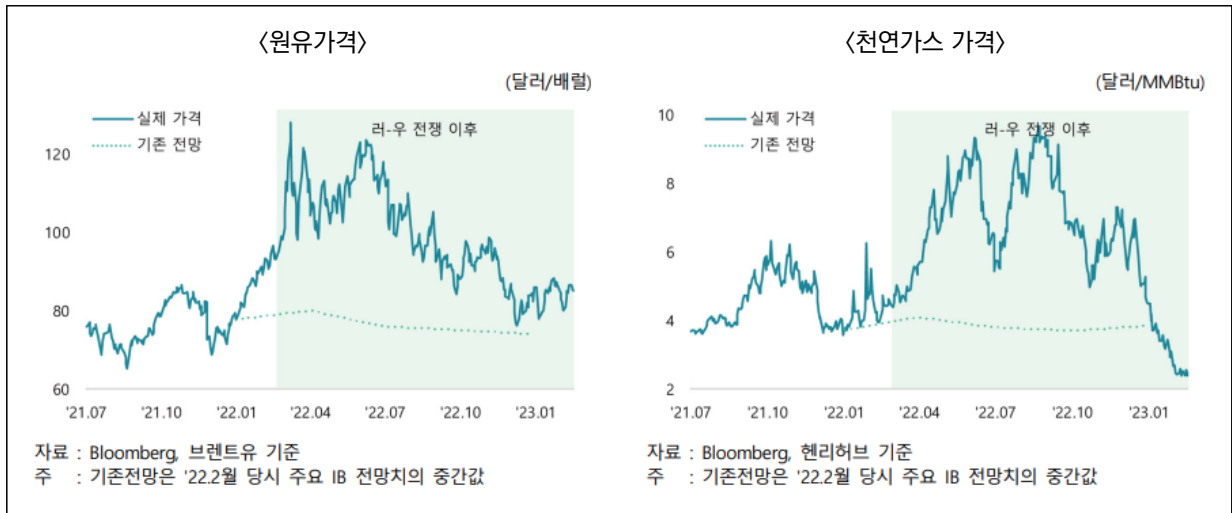
■ 2022년 중 원유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도 당초 전망 대비 큰 폭으로 상승

- (에너지) 2022년 원유와 천연가스 평균가격은 전쟁 이전 전망 대비 각각 29.1%, 70.1% 상승

- 원유가격은 배럴당 76.7달러로 예상되었으나 2022년 중 평균 99.0달러 기록
- 천연가스 가격은 당초 전망(3.84달러/MMBtu) 대비 70.1% 상승한 6.54달러로 지난해 내내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으나 최근 들어 하향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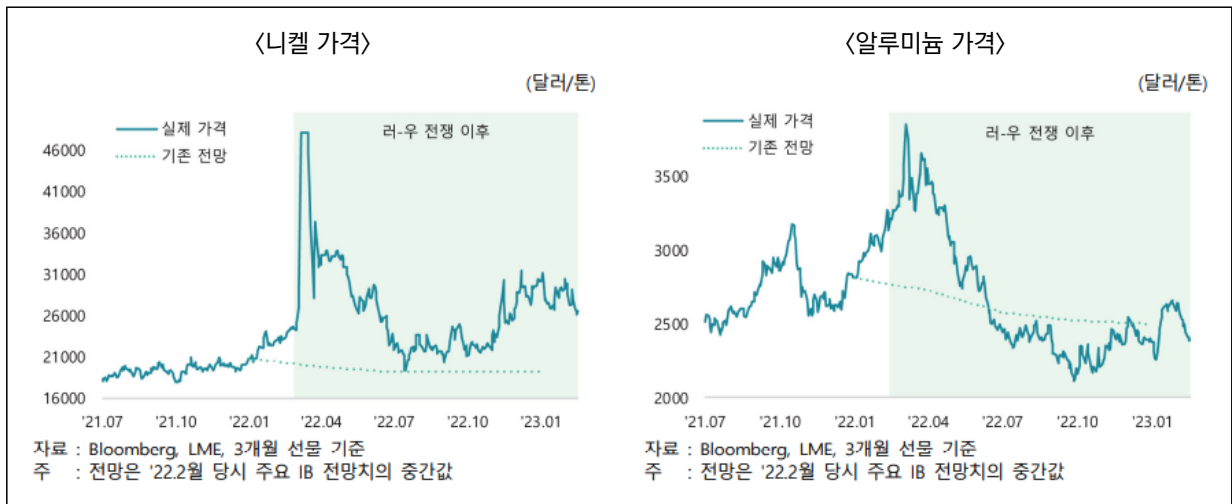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금속) 니켈 가격은 당초 전망 대비 34.6% 상승한 반면, 알루미늄 가격은 상승 폭이 3.7%로 상대적으로 적었음.

- 니켈 가격은 러-우 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과 중국 칭산그룹의 숏커버링(기)으로 지난해 3월 가격이 일시적으로 4.8만 달러를 돌파 하면서 이례적 상승 시현
- 알루미늄은 2022년 하반기 중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당초전망과 유사한 수준으로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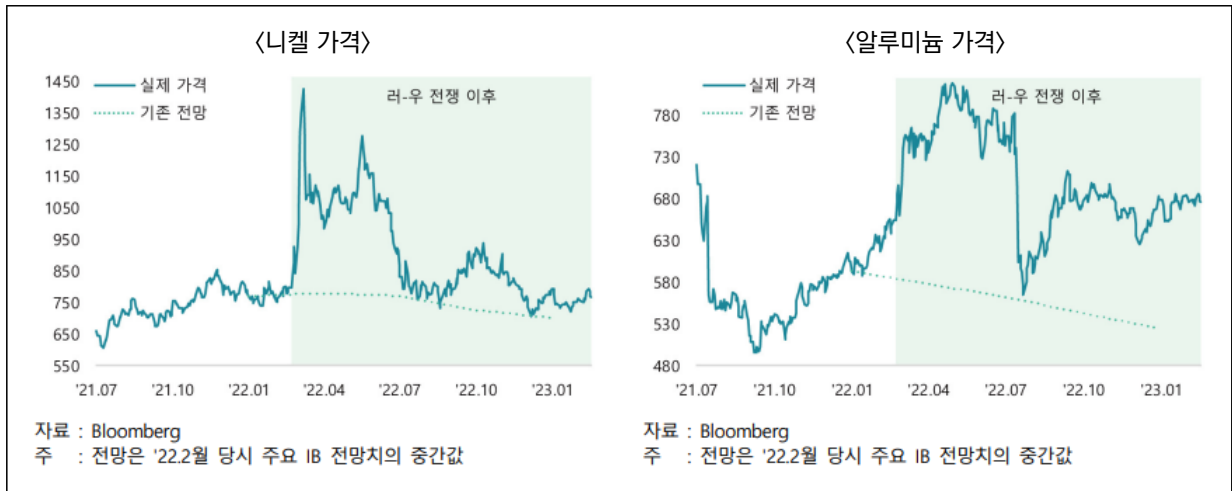


- (곡물) ‘유럽의 빵바구니’ 우크라이나의 재배지 훼손, 수출항 폐쇄로 밀과 옥수수의 2022년 평균 가격이 당초 전망 대비 각각 19.7%, 24.0% 상승

- 밀 가격은 2022년 상반기 중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안정화 추세이나, 옥수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3.2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OECD 2023 개발협력보고서: 새로운 원조시스템 논의³⁾

1. 개요

- Covid-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 위기 등 전 세계적인 대형 위기는 개도국의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전례 없이 악화시킨 한편, 이들에 대한 개발협력을 지원하는 공여 주체는 분절화 양극화되며 개발협력지형이 급격히 변화 중, 개발협력지형 변화는 개도국에게는 위협이자 기회
- 공여국 수원국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구축 및 개도국 현지 수요에 맞춤형 사업방식 현대화를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 필요

2. 추진 배경

- **① [국제개발협력의 수요 증가와 공급 주체의 분절화]** 지난 2년간의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 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적 위기 발생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수요가 급증

3)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OECD 2023 개발협력보고서: 새로운 원조시스템 논의"(2023.3.1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신흥공여국의 증가 및 국제개발협력 공급 주체의 분절화와 다극화, 다자주의에 대한 회의와 불신 증가
- ② [국제개발협력의 수급 불균형 및 개발협력 효과성 저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수요 급증,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기후 대응 재원 마련 등은 개발협력재원의 분야별, 지역별 재분배를 초래, 이에 따라 소외된 분야와 지역 발생
- 경기침체로 인하여 공여국들의 개발협력자금 여력에 제약 발생, 공급 주체의 분절화는 중복, 경쟁에 따른 낭비 및 수원국에게 과도한 행정부담과 거래비용을 발생시켜 개발협력 효과성 저해
- ③ [국제개발협력 지형변화에 따라 파트너십과 사업방식 개선 필요] 전통적인 공여국들의 재원 공약 이행 여지를 재확인하고, 동시에 새로운 공여국들과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다원화된 개발 재원을 동원하여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대응 필요
- 양극화된 개발협력의 지형변화가 개도국에게는 위협이자 기회이며, 새로운 변화에 맞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구축 및 개도국의 현지 수요에 맞춤형 사업방식 현대화가 필수

3.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행동 대안 제안

■ ① 개발재원 공약의 이행

- ODA/GNI 0.7% 목표 달성 및 이를 위한 **중간 목표치 설정 관리**
 - 국제사회가 합의한 ODA/GNI 0.7%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중간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회 및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 필요
- 민간지원수단 측정 방식 도출 및 혁신적 재원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
 - ODA를 통한 민간지원수단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민간지원수단 측정 방식을 도출하고, 보증·채권 등 다양한 혁신적 수단을 활용
- 기후재원 측정 방식 합의 및 개도국의 기후재원 접근성 향상
 - 2025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수립 과정에서 기후 재원의 측정과 추적 방식을 도출하고, 기존 및 신규 기후재원에 대하여 개도국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 완화와 양허성 향상 필요
- 기존 개발협력공약 이행에 부합하는 **배분 전략 검토**
 - UN의 최빈개도국(LDC) 목표치를 감안하여 ODA/GNI의 0.15~0.2%를 최빈개도국에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비중을 늘려나가고, 개도국 여건 맞춤형 분야별, 사업형태별 배분을 재검토
- 인도적 지원 재원 제공 방식의 유연성 제고
 - DAC의 인도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와 2016년 인도적 대합의(Grand Bargain)에 따라 장기간의 지원, 다년간 재원 지원 및 공여국의 공동 기금, 다양한 수단의 유연한 활용, 피해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 보험 등의 새로운 인도적 지원 재원의 동원 등을 활용
- (사하라 이남) 인플레이션 및 긴축정책으로 인한 국내 수요 감소 지속 → 장기 평균 이하 성장세 유지하며 3.6% 전망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② 개도국 현지 주도 개발협력 강화

- **개도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유연하고 민첩한 개발협력 추진**
 - 개도국의 변혁과 전략적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도국의 우선순위와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 및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투자하고, 민첩성·융통성·지속가능성·포괄성에 집중하여 보다 장기적 효과를 창출
- **개도국의 거버넌스와 법치주의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
 - 개도국 공공·민간의 8천여 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OECD 회원국의 개발협력 비교우위가 거버넌스 및 법치주의 역량 강화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를 양자·다자 원조에서 지속 추진
- **수원국의 현지 수요와 공여국의 현실을 감안한 원-원 해결책을 모색**
 - 개도국 현지 주체들의 수요에 맞춘 현지 주도 개발협력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정의하되, 개발협력 공여 주체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상호 이득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
- **다양한 현지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개발협력 원칙과 제도개선**
 - 다양한 현지 주체들과의 파트너십과 수원국 시스템을 개발협력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절차, 조달 규정 등 내부 규정이 이에 맞게 개선되어야 하고, 개발효과성 원칙 및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시민사회권고에 부합하는 파트너십 체계 수립 필요

■ ③ 사업수행과 관리방식의 현대화

- **개발협력정책 추진에 관련된 분야 간의 정책 일관성 향상**
 - 환경, 안보, 이주, 불법자금 흐름과 역외 관세 등 국내 및 외교 정책이 개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유관 정책 간의 일관성을 향상
- **일관성 있는 원조 집행을 위하여 범정부적 양자 다자원조전략 수립**
 - 국내 다수의 집행기관 간의 일관성을 향상하고 수원국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범정부 국가지원전략 및 다자원조 전략 수립
- **효과가 입증된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 분야 및 국가 포트폴리오 마련**
 - 주제별, 국가별로 개발협력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효과가 입증된 수단을 활용하여 집행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개발협력의 목적을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분절화와 중복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혁신적 방식의 시도 기회를 확보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상호 이득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
- **개도국에 대한 자원 정보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개발협력 파트너들에 대한 투명성과 중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 자원 흐름의 병목 현상을 극복
- **개발 자원에 관한 의사결정 시 개도국 및 타 공여국과 조율 강화**
 - 개발 자원에 관한 의사결정 시 개도국 및 타 공여국과의 조율을 강화하되, 실시한 정보와 데이터, 교훈을 기반으로 조율의 적시성과 책임성을 확보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④ 수원국 공여국 간 권력관계 재조정

- 저·중소득국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도록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 저·중소득국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을 투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글로벌 거버넌스를 현대화하고, 글로벌 공공재 공급의 운영과 자원 조달에 관하여 공유된 해결방안을 모색
- 개발협력에서 힘의 불균형과 인종차별 해결을 위한 제도와 역량 구축
 - 개발협력시스템에 내재된 권력 불균형과 인종차별적인 요소에 대한 인식개선을 우선시하고,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제도개선 및 인적 구성의 다양성 추구, 공정한 파트너십의 구축, 반인종차별 소통 원칙 개발 등을 실시
- 수원국 수요 우선순위를 존중하며 다양한 공여 주체들 간 협업 강화
 - 수원국의 수요와 우선순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공여 주체들이 삼각협력, 남남협력* 등을 통하여 공통의 규범과 책임성 위에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자원 규모 확대
 - ※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선발 개도국이 후발 개도국을 지원하는 형태의 국제개발협력 체제로,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남반구에 있어 남남협력이라고함.
 - ※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형성된 남남협력에 하나 이상의 전통적 공여국 또는 국제기구가 참여해 재정, 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남남협력을 보완하는 방식
- 개도국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과 파트너십 확대
 - 현지 주도 개발과 탈식민지화에 대한 최근의 관심 고조를 계기로 개도국 내의 연구 주체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3.2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푸드테크와 대체식품 시장 동향⁴⁾

1. 개요

-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이며, 식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식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 생산 공정의 효율화 등 부가가치를 제고
-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윤리적 소비,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푸드테크 산업이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EU 등은 정부 차원에서 푸드테크에 적극 투자 중
- 푸드테크 분야에서 특히 대체식품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산업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

4) KDB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한 “푸드테크와 대체식품 시장 동향”(주간 KDB리포트, 2023.2.2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2. 시장 동향

식품 소비에 대한 인식 변화, 글로벌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위기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대체 육 등 푸드테크 관련 산업이 부상

-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이며, 코로나19 이후 환경·건강 관심 증대 등 트렌드 변화로 푸드테크 산업이 부상
-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윤리적 소비, 환경·건강 관심 증대에 따라 간헐적 채식주의자(Flexitarian)*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대체식품 중 특히 대체육 관련 기술 개발과 소비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
 - ※ 간헐적 채식주의자(Flexitarian): 건강 혹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채식을 실천하지만 경우에 따라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을 뜻하며, 2020년 기준 전 세계 소비자의 40% 이상을 차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글로벌 대체식품 관련 투자액은 2020년 31억 달러에서 2021년 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 증가

| 글로벌 대체식품 투자액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투자액		
	2020년	2021년	누적(2010~2021년)
식물성 고기	2,100	1,900	6,300
배양육	400	1,400	1,900
발효 단백질	600	1,700	2,800
합계	3,100	5,000	11,100

※ 자료: GFI APAC

- 대체육은 비동물성 재료로 모양과 식감을 고기와 유사하게 구현한 것으로, 크게 식물성 대체육, 배양육, 식용곤충 등으로 분류
 - 식물성 대체육은 대두 단백질, 완두콩 단백질, 밀 글루텐 등 식물 기반 단백질 및 향신료, 기타 식물 파생물의 조합으로 제조된 제품
 - 배양육은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살아 있는 동물세포를 배양하여 얻는 식용 고기를 의미하며 배양육의 맛은 근세포, 지방세포 등으로 조절 가능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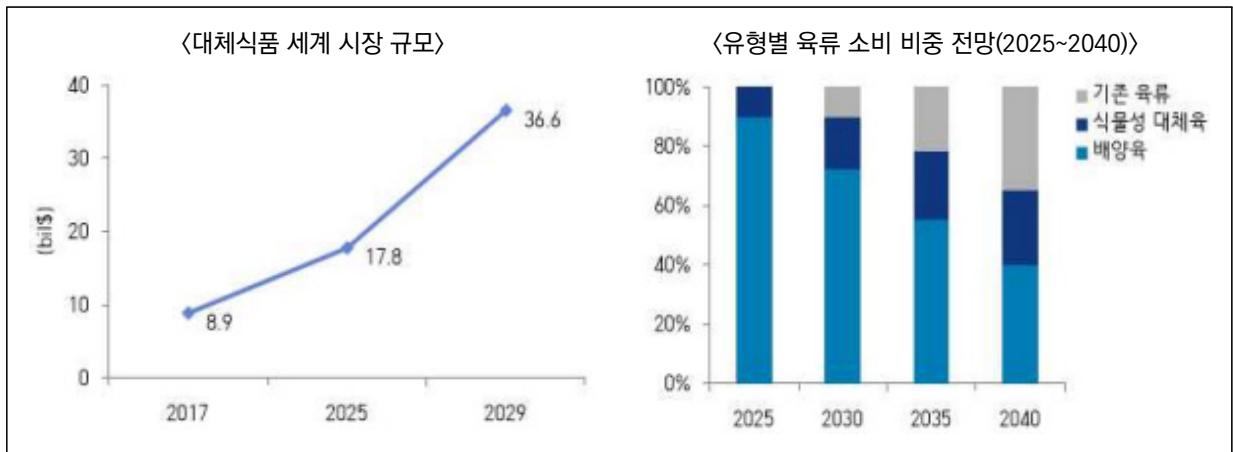
| 육류와 대체육 유형별 비교 |

구분		기존 육류	배양육	식물성 고기	식용 곤충
가격	대량 생산 가능성	높지만 한계 존재	기술장벽 존재	높음	높음
	생산 비용	상승추세	고가	낮음	하락추세
환경	자원사용량	많음	적음	적음	적음
	온실가스 배출량	많음	잠재적 감소	감소	감소
윤리	동물복지 문제	상존	없음	없음	없음
건강	건강효과	변화없음	지방산 조성 개선 철분 감소	단백질 증가 콜레스테롤 감소	-
	안전성	변화없음	검증된 제품 없음	안전성 검증	알레르기 우려

※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글로벌 대체식품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되며, 해외 스타트업 및 국내 식품기업의 친환경 푸드테크 분야 진출 확대 예상

- 글로벌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89억 달러에서 2025년 178억 달러 규모로 성장(연평균 성장률 9.1%)이 예상되고, 이후 더 높은 연평균 성장률 19.7%를 보이며 2029년 366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향후 대체육 소비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전통 육류와 대체육 소비 비율이 2025년 9:1에서 2040년 4:6으로 역전될 것으로 전망



- 해외 대체육 시장은 식물 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의 기업인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 및 비온드미트(Beyond Meat), 배양육 분야 스타트업인 알레프 팜스(Aleph Farms) 등 푸드테크 기업이 주도하여 성장 중



국제 농업 정보: 글로벌

- 국내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2017년~2020년 연평균 31.4% 성장하며 약 61조 원(2020년 기준) 수준
 - CJ제일제당, 신세계푸드 등 식품 대기업들이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푸드테크, 대체식품을 선정하고 국내외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투자 확대 중
- 푸드테크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 정부도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2022.12., 농식품부)을 수립하며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 육성 추진
 -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체육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식품도 식품 원료 인정 등 식품규제 혁신에 착수(2023.2.7.)
 - 해외에서도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1,200만 달러 규모의 대체육 R&D 투자프로그램 운영, EU의 2020년 「식품안전전략 (Farm to Fork Strategy)」에 기반한 대체 단백질 분야 연구개발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이미 적극 추진 중
- 향후에도 지속가능경제 측면에서 긍정적인 대체식품과 푸드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도기업 육성, 푸드테크 산업 정착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4.0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미국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1 2021 미국농업정책 - 생산자 지원⁵⁾

- 생산자 지원은 판데믹 대응, 재해 대응, 상품프로그램(commodity program), 보존 프로그램 (conservation), 작물보험, 기후변화대응 등으로 구성됨.
- **[판데믹 대응 정책]** 판데믹 초기에 농업 생산시스템의 붕괴와 농식품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에 직접지불금을 제공하거나, 농식품 수요를 유지하고 저소득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정부가 농산물을 구매하여 저소득층 혹은 기관에 기부하는 정책을 시행함.
 - (Coronavirus Food Assistance Program)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가격 하락,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함.
 - 2021년에는 추가로 12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하여, 새롭게 유기농 전환(Organic and Transitional Educ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 유제품 기부(Dairy Donation Program) 등 감소한 농식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
 - 기존 정책 중에서는 지역농업시장프로그램(Local Agriculture Market Program), 신규농가성장 프로그램(Beginning Farmer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 등을 강화함.
- **[재해 대응 정책]** 미국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 허리케인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 정책이 확대됨.
 - 농업 재해는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578개의 카운티에서 농업 재해 선언(disaster declarations)했고, 2017년 이후 재해 선언이 증가하는 추세임.
 - 2017년부터 WHIP(Wildfire and Hurricane Indemnity Program)을 통해 산불, 허리케인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였으며, WHIP+, WHIP Milk Loss Program 등을 통해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5)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U.S. Agricultural Policy Review, 2021"(2023.2.2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국제 농업 정보: 미국

- 2021년 9월에는 2020년과 2021년에 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가 발생한 농가에 1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함.
- **[상품프로그램]** 직접지불금은 주로 Farm Bill을 통해서 구성되지만, Farm Bill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직접지불금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도 함.
 - 2021년에는 Dairy Margin Coverage Program을 통해 중소규모 낙농가가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는 약 250마리 이하의 젖소(500만 파운드 이하 생산량)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우유 가격과 사료 가격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원액을 지급하는 정책임.
- **[보존프로그램]** 새로운 보존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이하 CRP)은 기후스마트 농업의 실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2021년에는 CRP에 참여하면, 실천(practice)을 통해 예상되는 개선 효과에 따라 연간 임대료의 3~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였음.
 - 2018년 Farm Bill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Soil Health and Income Protection Program과 CLEAR30 등은 전국으로 확대됨.
 - 2021년 10월, Climate Change Mitigation Assessment Initiative에 1,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토지 내 탄소를 샘플링, 측정, 관리하기 시작함.
- **[작물보험]** 연방작물보험프로그램(Federal Crop Insurance Program) 또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 친환경적인 농업 실천에 대하여 새로운 작물보험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농가가 지속가능한 농법을 사용하도록 유도함.
 - 2021년 6월 Pandemic Cover Crop Program을 통해 자연환경보존청의 기준에 맞는 농지에 대하여 5\$/에이커의 작물보험 지원금을 제공함.
 - 소규모 농가에 대한 보험보장을 높이기 위하여, 2021년 10월에는 Micro Farm Policy를 발표하여 연간 \$100,000 이하의 수익을 거두는 농가에 지원함.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2021년 8월에 Action Plan for Climate Adaptation and Resilience를 발표했으며, 생산성 악화, 수자원 문제,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 개선, 기후스마트농업 보급 등의 방안을 제시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3.1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미국

2 2021 미국농업정책 - 농식품 정책 및 식품 지원⁶⁾

- **[식품 정책]** 생산자 지원 정책 외에도 농식품 공급 사슬을 구성하는 노동자,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 농식품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임.
 - **(Farm and Food Workers Relief Grant Program)** 농장 노동자와 육가공 노동자들이 코로나 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 의료 장비, 격리, 검사를 위한 지원금을 포함 7억 달러의 지원금을 주, 비영리기관 등에 배부함. 농무부에서는 2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소매업체 노동자에게 코로나 19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
 - **(회복력 강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농식품 공급 사슬의 충격에 대비, 2021년 6월 미국 농무부는 4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여 식품공급사슬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며, 기후변화를 늦추고, 질 좋은 일자리를 식품공급사슬에 만드는 등의 정책을 시행함.
 - **(지역 농식품 수요 유지)** 2021년 12월, Local Food Purchase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구매를 위해 4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였음.
- **[식품 지원]**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확대가 2021년에도 이어져 식품 지원에 1,825억 달러가 사용됨.
 - 2020년에 시작된 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P-EBT)와 Families Food Box Program이 지속됨.
 - 미국 농무부는 총 15개의 식품영양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은 식품영양지원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크며, 2021년 1월에 가구당 지원금액의 상한이 15% 증가됨. 이로 인해 연방 SNAP의 예산은 1,138억 달러를 기록함.
 - 2021년 6월에는 미국 농무부가 America Rescue Plan을 통해 10억 달러를 투입하여 푸드뱅크 등 긴급식품지원 네트워크를 지원하기로 함.
 - 미국 농무부는 2021년에 영양안보(nutrition security)를 우선하는 계획을 시작함. 이는 건강, 질병 예방 및 관리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식품과 음료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저소득층, 특정 인종 및 소수자들, 농촌 및 원격지 등에 특히 집중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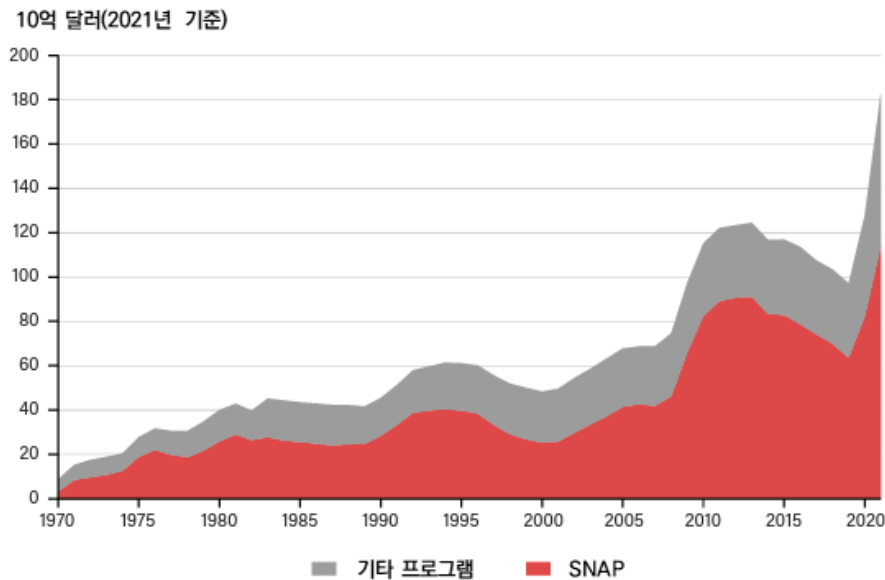
6)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U.S. Agricultural Policy Review, 2021"(2023.2.2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국제 농업 정보: 미국

- 또한, 기존의 식량안보(건강한 활동과 삶을 위한 충분한 식량의 공급)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건강, 문화, 식품 선호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화된 식품을 공급하고 공정성에 더욱 초점을 맞춤.

| 식품영양지원프로그램 예산 변화(2021년 가치 기준) |



- 2021년 농업정책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와 기상재해로 인한 농식품 피해를 관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짐.
 - 생산자 지원 정책은 팬데믹 관련 재정 지원 프로그램, 현행 정책에 예산 강화 등의 유형으로 이루어짐.
 - 2021년에는 새로운 종류의 기후-환경 관련 정책들이 도입되었음.
 - 정책입안자들은 농식품산업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시설, 노동자들의 건강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투자를 하였으며, 소비자들을 위해서 식품영양지원프로그램의 강화를 중점적으로 시행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3.2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유럽



1 2023년 식량안보 전망과 EU의 대응⁷⁾

1. 2021년: 기아 인구 증가

- 세계 식량안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이미 위기 상황이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혼란은 2021년 하반기 글로벌 농식품 체인의 심각한 병목 현상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짐.
 - 2021년 전 세계 기아 인구는 8억 2,800만 명 수준이며, 세계 인구의 약 30%인 23억 명의 사람들이 중간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에 직면함.
 - 전 세계적인 혼란은 EU에도 큰 영향을 미침. 2022년 1월 유로 지역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5.1%로 2021년 1월 0.9%보다 상승했고, 빵과 같은 기본제품의 소비자가격도 2021년 1월 1.7%에서 2022년 1월 7.3%로 상승함.

2.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식량안보를 더욱 악화시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크게 상승시킴.
 - 전쟁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및 수출의 34%, 보리 27%, 옥수수 17%, 해바라기유 55%를 차지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은 이미 식량안보가 불안정했던 많은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에 특히 중요함.
 - 식량 위기 악화를 막기 위해 EU, 미국 및 기타 유사 국가들은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제재를 자제했으나, 러시아는 에너지, 곡물, 비료 수출을 무기화함.

7) 유럽연합의회조사처의 "Russia's war on Ukraine-Maritime logistics and connectivity: State of play"(2022.12.16.) 내용을 미래정책 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유럽

- 국제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전쟁의 영향이 빠르게 확산됨.
 - 2022년 3월 UN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식량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유럽 농업인들은 에너지, 비료, 동물 사료 등 주요 투입물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직면함.
 - 유로 지역 인플레이션은 2022년 3월 7.4%, 11월 10.6%, 12월 13.8%를 기록하였으며, 식품, 주류, 담배 등이 에너지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임.

3. 2023년: 식량안보 전망

- 2023년 1월 세계 식량 가격이 10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유로 지역에서는 식량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임.
 - EU의 연대 차선과 흑해 곡물 계획은 국제 시장에 대한 우크라이나 식량의 안전한 수출을 촉진해 옴.
 - 식량안보의 긍정적인 추세는 지정학적 및 환경적 요인에 크게 의존하며, 급변할 수 있음.
- 2023년 기상환경 변화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급격한 기상환경 변화는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이어져 EU와 세계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식량안보는 EU의 정책적 우선순위임.
 - 2020~2040년 기간 동안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 80억 유로의 기금을 배정함.
 - 농업생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전쟁의 영향을 완화하는 이중 목표를 추구함.
 - 유럽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식량, 사료, 비료 등에 대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촉구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으로의 글로벌 전환을 장려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3.2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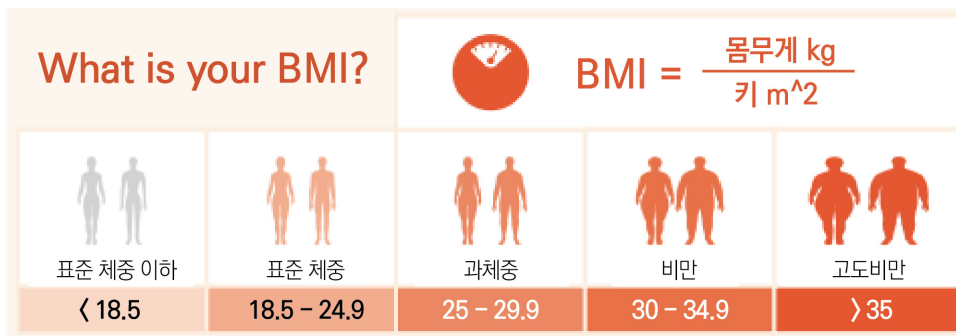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 유럽

2 EU의 비만 인구 현황과 대응 방안⁸⁾

- 매년 3월 4일은 세계 비만의 날이며, 비만 퇴치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 비만연맹의 계획임.
 - 세계보건기구(WHO)는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간주하며, 비만은 BMI가 30 이상인 심각한 과체중 상태임.
 - 비만은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및 13가지 종류의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역할을 함.

! 체질량지수(BMI)의 구간별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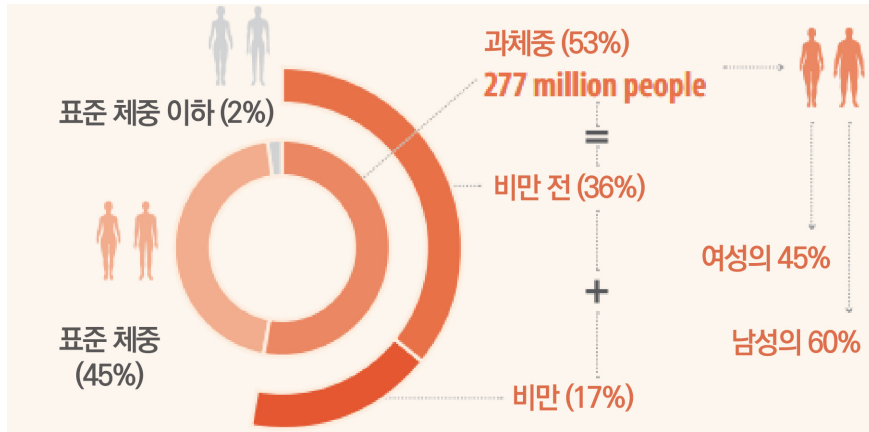
-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코로나19 팬데믹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킴.
 - 성인의 비만 비율은 1975년 이후 약 3배 증가하였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 비율은 약 5배 증가함.
 - Eurostat 추정치에 따르면, 비만 인구는 2035년까지 19억 명에 달할 것이며, 과체중과 비만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4조 3,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20~2035년 사이에 아동 비만은 10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EU에서는 성인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으로 간주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성인의 과체중 비율은 EU 국가마다 다르지만 모든 국가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더욱 높음.
 - 2019년 기준 성인의 과체중 비율은 크로아티아와 몰타에서 가장 높은 수준(65%)이며, 이탈리아(46%), 프랑스(47%), 룩셈부르크(4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8) 유럽연합의회조사처의 “World Obesity Day reveals a worrying picture”(2023.3.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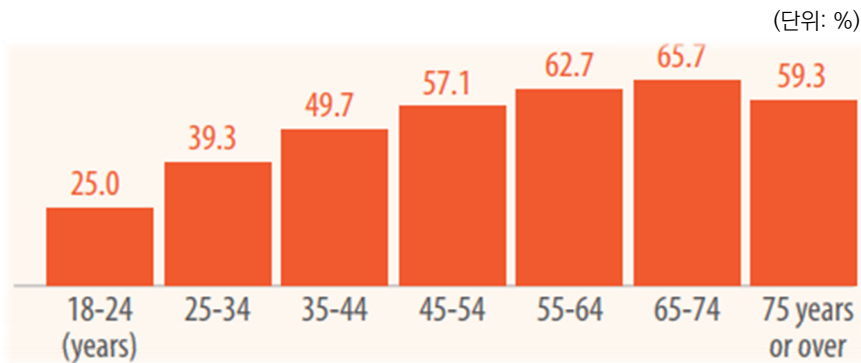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 유럽

EU 성인의 체질량지수(BMI) 구분 현황(2019년 기준) |



※ 자료: Eurostat

EU 성인의 연령별 과체중 인구 비율(2019년 기준) |



※ 자료: Eurostat

■ EU는 비만 인구감소를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추진함.

- '2022 EU4Health 프로그램'은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식을 공유하며, 특히 아동 비만을 해결하고자 함.
- 유럽 스포츠 주간을 개최함으로써 신체 활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건강한 소비를 돕기 위해 표준화된 포장 전면 영양표시 라벨링에 대한 입법 제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4.0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일본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1 2022년 농업물가지수⁹⁾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3년 1월 31일, 2022년 농업물가지수를 발표하였음.

※ 2022년 6월부터 2020년을 기준(100)으로 함.

■ 농업생산자재가격지수(종합가격지수)는 116.6이며, 비료(130.5)와 사료(138)가 전체 지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됨.

- 2021년 대비 비료는 27.1%, 사료는 19.4% 상승하였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엔화 하락 등의 영향으로 1년간 자재 가격지수가 크게 상승함.
- 2022년 12월 생산자재가격지수는 121.6으로 전월 대비 0.6%, 전년도 동월 대비 10.4% 상회하였으며, 31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음.
- 사료는 149.8로 전월과 동일하나 전년도 동월을 24.6% 상회함. 2022년에는 중국 등에서 수요가 왕성하였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곡물 유통량 감소 및 엔화 하락 등으로 인해 가격 지수 상승이 이어짐.
- 비료는 153.3으로 전월 대비 2.5%, 전년도 동월 대비 40.9%를 상회함. 2022년에는 주요 원료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가격상승과 엔화 약세도 겹쳐 상승세가 이어졌음.
- 세계적인 원유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22년 광열동력은 127.3으로 전년 대비 13.4% 상승함. 시설원예에서 사용하는 A증유는 최근 국제 시세는 하락하였으나 엔화 약세로 인해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음.

■ 자재비가 크게 증가한 한편, 농산물가격지수(종합가격지수)는 큰 변동이 없는 101.4임. 채소는 106.4로 상승하였으나 쌀(80)과 맥류(89.5) 등이 하락한 것에 기인함.

9) 일본농업신문 “22年は資材價格過去最高 肥料3割 飼料2割上昇”(2023.2.1.)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채소는 2021년 대비 10% 상승하였으나 쌀은 9.7% 하락하여 농산물가격지수는 0.6% 상승하는 수준에 그쳤음.
- 농업생산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농산물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농가의 부담이 증가한 상황임.
- 2022년 12월 농산물가격지수는 102.3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채소는 3.5% 하락하였으나 쌀 9.6%, 축산물은 4.4% 상승함.
- 2년 전(2020년)에 비해 비료값은 30%, 사료값은 40%가 증가하였음. 2022년 농업생산자재가격지수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농가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생산비에서 사료비 비중이 높은 낙농가의 이농(離農)이 가속화되는 등 생산자재 가격상승이 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음.
- 비료와 사료 모두 수입 의존도가 높아 해외 정세변화에 따라 농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따라서 퇴비, 사료작물, 하수 슬러지 등을 활용한 순환형 영농체계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3.1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영농형 태양광발전 현황과 과제¹⁰⁾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3년 2월 20일, 농지법제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회(이하 농지법제 연구회)에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 농림수산성 조사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발전 중 약 20%는 국가에서 지정한 수확량 기준(지역 평균 80%)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말 2019년도까지 허가받은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보고를 집계한 결과, 영농형 태양광발전 시설은 총 2,535건이며, 18%(458건)가 영농에 지장이 생겨 수확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영농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재배관리 등으로 인한 단수 감소가 73%(335건)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재해 16%(73건), 설비 공사 지연 7%(32건)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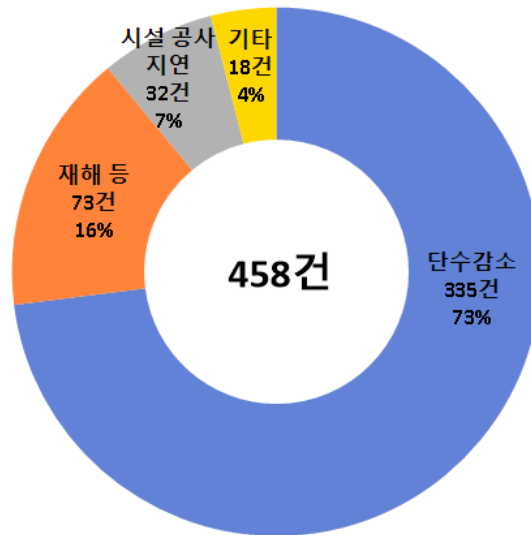
10)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2當農型太陽光発電 約2割が&當農に支障 農水省”(2023.3.8.), 일본농업신문 “當農型太陽光発電で調査 収量基準未滿18%農水省”(2023.2.2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단수가 감소한 시설 중 50% 이상이 지역 평균 단수의 20% 미만임.

| 영농형 태양광발전 영농 문제 요인 |



-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농지에 지주를 세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패널 하부 공간에서 작물 생산하는 동시에 발전하는 구조로 농지 일시전용허가가 필요함.
- 일시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 평균 단수 대비 20%이상 감소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어 매년 농산물 생산 현황을 보고해야 함.
 - 단수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 농업위원회 등이 지도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통지 기반으로는 운용에 한계가 있으며, 패널 하부 외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전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2023년 2월 20일, 농지법제 연구회에서 '단수 80% 요건의 기준이 되는 지역의 평균적 단수의 판단 방법 확립'이 필요하며, 허가 기간 중 매년 실적 보고를 법정화하여 기준 위반 시 영농형 태양광발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농지전용 대상 |



일시전용 대상

| 영농형 태양광발전 현황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신규허가 건수	102	351	395	404	318	474	651	779	3,474
일시전용허가면적(ha)	17.6	54.7	84.9	159.3	79.2	149.6	182.6	144.8	872.7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3.2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소비자동향조사 - 농촌 및 농업 생산자 간 관계성¹¹⁾

- 일본정책금융공고는 2023년 3월 7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농촌 및 농업 생산자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

※ 전국 20~70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동향조사(2023년 1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에서 특별조사로 농촌 및 농업 생산자와의 관계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함.

- 농산물 산지에 '관심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70%, 생산자에 '관심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50%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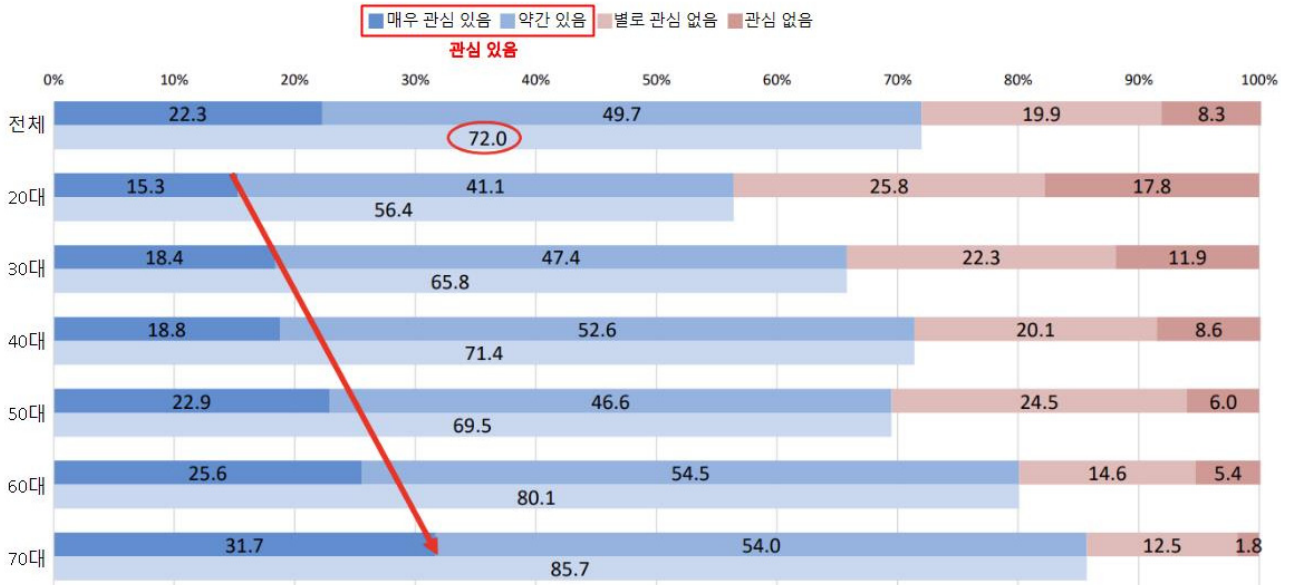
- 평소에 섭취하는 농산물 산지에 대해 '관심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72%('매우 관심 있음' 22.3%, '약간 관심 있음' 49.7%)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매우 관심 있음'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11) 일본정책금융공고 "消費者動向調査(令和5年1月調査) 特別調査: 農村や農業生産者との関わりについて"(2023.3.7.),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生産者発信のSNSに期待 消費者動向調査 日本公庫"(2023.3.1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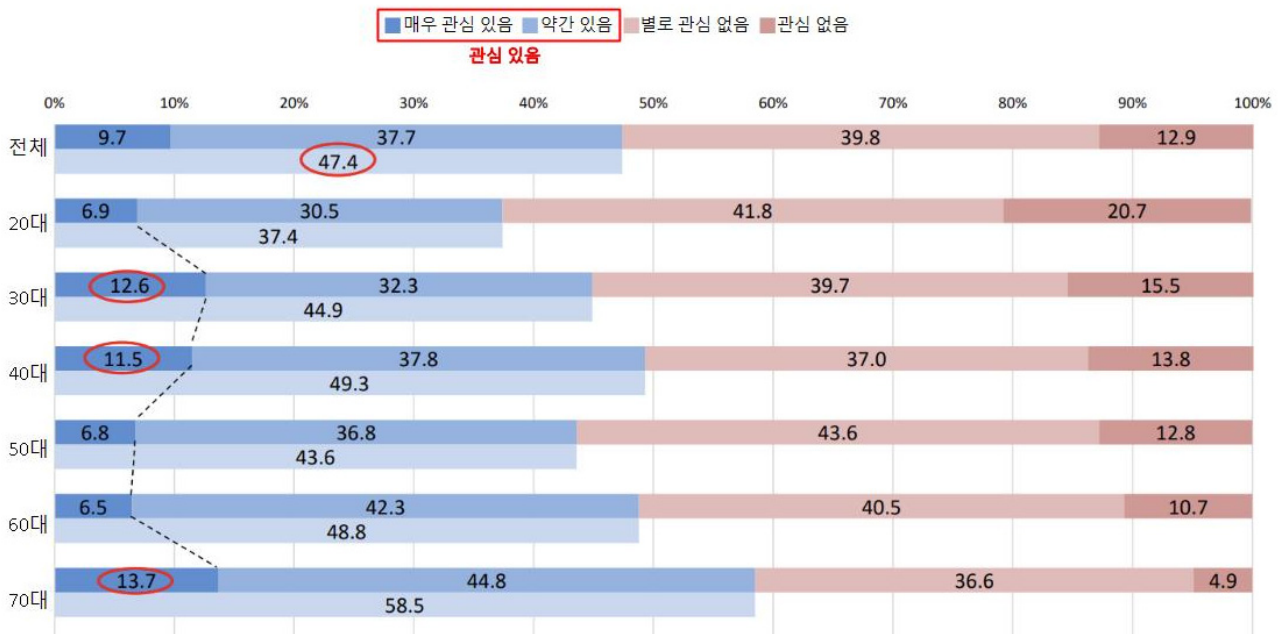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 일본

소비자의 농산물 산지에 관한 관심도



- 생산자에 '관심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47.4%였으며, 이 중에서 '매우 관심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30대 12.5%, 40대 11.5%, 70대 13.7%로 10%를 웃돌았으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높은 응답률을 보임.

소비자의 농산물 생산자에 관한 관심도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농산물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농산물과 관련하여 어떤 정보에 관심 있는지 조사한 결과, '맛(78%)', '보관 방법(72.7%)', '섭취·조리 방법(71.5%)', '영양성분·효능(70.8%)', '농약 사용 여부(70.5%)'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겨 해당 항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어떤 방법으로 생산자·생산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지에 대해 20~30대는 '생산자가 공유하는 SNS'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현재 어떤 방법으로 생산자·생산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매장·음식점 표기'가 4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TV, 신문, 잡지' 41.6%, '생산자의 상품 제공 매장(인터넷 포함)·음식점 홈페이지' 22.2% 순임.
 - 향후 어떤 방법으로 생산자·생산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생산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28.6%)', '제품 포장 및 매장 앞 안내판(21.2%)'은 현재 정보를 얻는 방법보다 5%p 이상 높았고, 연령대별로 보면 '생산자가 공유하는 SNS'는 20대는 32.5%, 30대는 27.3%로 다른 연령대 응답 비율은 10% 수준에 그친 것에 비해 응답 비율이 높았음.
- 농촌·농업 생산자와 어떤 관련 있는 경험을 했는지 조사한 결과, '산지 및 생산자 직거래'가 50.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광농원·체험농원 등 수확 체험' 19.5%, '고향세 기부' 10.5% 순으로 조사됨.
- 향후 농촌·농업생산자와 어떤 관련 있는 경험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산지 및 생산자 직거래'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관광농원·체험농원 등 수확 체험(13.4%)', '고향세 기부(11.9%)' 순으로 나타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3.2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낙농 대책¹²⁾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3년 3월 24일, 사료 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축산·낙농 대책을 결정함.
 - 1~3월의 배합사료는 1톤당 8,500엔을 긴급 보전, 4월 이후에는 배합사료 가격이 고공행진 했을 경우 보다 쉽게 보전 가능하도록 특례조치 신설함. 단미사료를 구매하여 자가 배합하는 농가에는 2022년도 옥수수 조달량에 따라 1톤당 1,200엔을 지원함.

12) 일본농업신문 "1~3月飼料1ト>8500円 自家配合にも1200円 畜酪支援"(2023.3.25.)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1톤당 8,500엔 보조는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에 따른 보전과는 별도로 마련함. 2022년 10~12월에 진행한 1톤당 6,750엔 긴급보전을 웃도는 수준이며, 생산비용 절감 노력 등이 지원 요건임.
- 농림수산성은 1~3월 배합사료 가격을 동 10만 엔 수준으로 산정하였음.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에 의한 보전과 긴급보전을 합치면 농가부담은 생산비용 절감 대응을 고려해 1톤당 8만 7,000엔,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9만 엔 수준으로 전망됨.
- 4월 이후에는 배합사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가격안정제도에 의한 보전이 일정하게 발동되도록 특례를 마련함. 통상적으로는 해당 분기와 직전 1년간 수입원료가격을 비교하여 차액을 보전하나, 특례에서는 직전 2년 반의 수입원료 가격과 비교하여 보전액을 산정함.
- 농림수산성은 이 특례를 항구적으로 진행할 생각임. 가격안정제도로 ① 2년 이상 보전을 발동하고, ② 이상(異常)보전이 발동하지 않는 것 등을 특례 적용 조건으로 하며, 특례에 의한 보전 단가는 전기의 3/4까지로 함.
- 자가배합사료를 제조·이용하는 농가는 옥수수 국내 조달비 증가분 일부로써 2022년도 조달량 1톤당 1,200엔을 지원함. 자가배합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등의 조건이 있음.
- 낙농조사료상승대책은 경산우 1두당 도부현(홋카이도 제외)에서 1만 엔, 홋카이도에서는 7,200엔을 지원함. 2022년 가을에 진행한 대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산조사료 이용 확대 등이 요건임.

〈축산·낙농 대책 주요 사항〉

- 배합사료가격상승대책
 - (1월~3월)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와 별도로 긴급보전 ⇒ 1톤당 8,500엔
 - (4월 이후)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에 특례 신설 ⇒ 당해 4분기와 직전 2년반과 비교
- 자가배합대책
 - 22년도 옥수수 조달량에 따라 지원 ⇒ 1톤당 1,200엔
- 낙농긴급대책
 - 경산우 두수에 따라 지원 ⇒ 도부현(홋카이도 외): 1두당 1만 엔, 홋카이도: 1두당 7,200엔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4.1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 일본

3 2022년도 식생활·라이프 스타일 조사(1)¹³⁾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부터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양성하기 위해 ‘음식으로부터 일본을 생각한다 NIPPON FOOD SHIFT’를 시행 중임.
 - 일본 푸드 시프트 운동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일상 소비 행동이나, 먹거리 및 농업에 대한 의식, 식사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도 식생활·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023년 3월 13일 결과를 발표함.

<일상 정보 입수 경로와 소비 행동>

- [평균 뉴스나 새로운 화제 정보 입수 경로] 인터넷 이외에서는 ‘텔레비전’이 6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가족 및 친구와 대화’가 34.3%, ‘신문’ 32% 순이었음.
 - 2022년도 조사에서는 신문이 34.8%, 가족 및 친구와 대화가 33.6%이었으나 응답 순위가 변경됨.
- 인터넷 관련 경로 중에서는 정보 입수는 ‘뉴스 사이트 등’이 71.1%로 ‘텔레비전’과 유사한 수준이었음(※ 조사 대상자가 Web 모니터인 점에 유의).
 - 남녀 모두 ‘텔레비전’, ‘신문’ 등으로 응답한 비율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젊은 층과 고령층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입수에서는 ‘뉴스 사이트 등’으로 응답한 비율은 젊은 층보다 45세 이상이 더 높았으며,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와 ‘SNS’는 44세 이하에서, 여성 젊은 층은 SNS 비중이 높음.
- [평균 쇼핑에서 중시하는 것] ‘비슷한 상품이면 저렴한 것’이 4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가능한 한 일본산 상품’이 34.4%로 그 뒤를 이었음.
 - ‘비슷한 상품이면 저렴한 것’에 대한 응답은 남성 65~74세(58.5%)의 응답이 가장 높음.
 - ‘가능한 한 일본산 상품’은 남녀 모두 65~74세(남 52%, 여 63.9%)가 가장 높았으며, 15~24세(남 16.3%, 여 18%)가 가장 낮음.
 - 여성은 ‘비슷한 상품이면 저렴한 것’에 대한 응답 비율이 40~50% 사이로 연령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13) 일본농업신문 “1~3月飼料1ト>8500円 自家配合にも1200円 畜産支援”(2023.3.25.)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먹거리에서 중시하는 것]** '가능한 한 일본산 상품'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먹거리 구매 시 쇼핑할 때 가장 중시하는 항목인 '비슷한 상품이면 저렴한 것(38.1%)'에 대한 응답 비율을 웃돌았음.
 - '가능한 한 일본산 상품'은 남녀 모두 세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고령층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또한, '비슷한 상품이면 저렴한 것', '타인의 평판보다 자신의 뚜렷한 가치 기준 우선',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 좋은 것', '생산지나 생산자에 대한 응원 의식'에서 65~74세 응답률이 높았음.
- **[평소 식자재 및 식품·음료 구매 장소]** '식품 슈퍼'가 79.6%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서는 '대형 슈퍼' 43.3%, '드럭 스토어' 41.8%, '편의점' 37% 순이었으며,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 '대규모 전문 사이트'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20%로 2021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신선 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한 국산 의식]** 쌀, 채소, 정육, 생선 등 신선 식품은 가능한 한 국산품 선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그러함' 27.6%, '대체로 그러함' 35.2%로 두 응답에 대한 합계는 62.8%임.
 - 신선 식품 이외 가공품은 '매우 그러함' 20.7%, '대체로 그러함' 37.2%로 두 응답에 대한 합은 57.9%였으며, 신선 식품, 가공품 모두 국산품에 대한 의식은 남녀 모두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남.
- **[식량의 비축 상황]** 조사 대상자 중 63%가 큰 이유 없이 식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비축하고 있는 식량은 '음료수' 48.6%로 가장 높았으며, '컵라면, 즉석 면, 건 면' 38%, '쌀(정미, 씻어나온 쌀, 즉석밥 등) 32.3%, '통조림' 31.3%, '레토르트 식품' 30.6%로 조사됨.
 - '음료수', '컵라면, 즉석 면, 건 면', '쌀(정미, 씻어나온 쌀, 즉석밥 등)', '통조림'을 비축하고 있는 비율은 남녀 모두 65~74세에서 가장 높았음.
- **[롤링 스톡※ 인지·실시]** '개념을 알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음' 23.2%, '개념은 몰랐지만 실천하고 있음' 14.3%로 두 응답의 합은 37.5%임. 반면 '개념을 모르며 실천하고 있지 않음' 15.5%, '잘 모름' 22.9%로 두 합계는 38.4%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함.
 - ※ rolling + stock: 평소엔 식품을 넉넉하게 구매하여 유통기한을 고려해 오래된 것부터 소비하고 소비한 만큼 더 사들이는 것으로 항상 일정량의 식품이 가정에 비축된 상태를 유지
 - '개념을 알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음'의 응답 비율은 남성의 경우 25~64세 모두 20%대로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의 경우 15~24세는 10.2%, 65~74세는 37.4%로 연령대별 큰 차이를 보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3.04.1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 농업 브리핑



1 아시아

1.1. 일본, 조류독감 장기화로 계란 공급부족

- 일본에서는 조류독감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물량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공급부족으로 인해 3월 계란 도매가격이 평년 대비 약 70% 높게 추이하고 있음.
 - 일본에서 계란은 생활필수품으로 불릴 정도로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식품이며, 국제 계란 위원회 (IEC) 데이터에 따르면 1명의 연간 계란 소비량이 337개로 멕시코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나라가 일본임.
 - 잇따른 조류독감 발생으로 슈퍼마켓에서는 계란 매대가 비어 있는 모습이 보이며, 1인당 1팩까지로 구매 제한을 하는 슈퍼도 많아짐. 외식 기업들도 계란을 사용한 메뉴 제공을 정지하는 등 관련 업계에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
 - 사료 가격도 오르는 상황에서 조류독감까지 퍼지자 양계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공급부족 상태는 올여름까지는 지속되는 것으로 예상됨.
- 계란 매매가격 기준이 되는 JA젠노타마고(전국계란농업협동조합)의 3월 M급 기준가격은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가격 대비 73% 높은 340엔/kg(약 3,370원) 인 것으로 나타나, 과거 최고치를 기록함. 3월 이후에도 조류독감이 일본 각 지방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공급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세계 농업 브리핑

- 이번 조류독감 유행으로 3월 6일 시점에서 과거 최대 약 1,570만 마리가 살처분 대상이 되었음. 판매 목적의 계란을 낳는 닭의 약 10%가 줄어든 것임.
 - 계란은 농가의 대규모화로 생산효율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안정적인 식품이 되었으나, 대규모 농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그만큼 영향이 클 수 있음.
 - 이번 조류독감은 일본 북쪽 지방 아오모리현에서 남쪽지방 큐슈 가고시마현까지 광범위로 피해가 퍼져 타지역과의 물량 조율도 어려운 상황임.
- 계란의 공급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외식업체나 편의점에서는 계란 사용률이 높은 메뉴를 판매 정지하는 등 대응에 바빠짐. 전 도쿄농업대학 교수에 따르면, 사료값이나 양계농가 경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급 회복은 빨라도 '24년 봄으로 추측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계란 대체품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재빠른 상품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2023.03.30.)

1.2. 말레이시아,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에 팜유 수출 허브 조성 계획

-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팜유 수출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파딜라 유소프(Fadillah Yusof)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에 새로운 팜유 수출 허브를 건설할 의향이 있다고 발언함.
 - 말레이시아 원자재플랜테이션산업부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파달리 유소프 부총리는 말레이시아 팜유위원회(MPOC, Malaysian Palm Oil Council)가 신흥국 시장 공략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임.
-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2위의 팜유 수출국이며, 주로 인도, 중국, 필리핀에 팜유를 수출하고 있음.
 - 파딜라 유소프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주(駐)말레이시아 이집트 대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이집트 정부도 아프리카 지역 팜유 배급 허브가 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언함.
 - 파딜라 유소프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이집트가 말레이시아로부터 팜유를 수입하고, 이를 다시 아프리카 국가로 재판매하길 원한다”고 덧붙임.
- 2022년 말레이시아의 대(對)중동 및 대(對)북아프리카 팜유 수출량은 전년 대비 각각 32%, 51% 증가함.



세계 농업 브리핑

- 파딜라 유소프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중국 정부도 팜유 수입을 늘리려 한다고 덧붙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유럽연합(EU)이 팜유 사용 규제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팜유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고자 함.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3.04.03)

1.3. 중국, 유제품 시장의 현황

- 중국에서 유제품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역력 증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제품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유제품의 종류와 소비자들의 구매 통로 또한 점점 다양화되고 있음.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우유 생산량은 3,932만 톤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고 함.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중국 유제품 산업 시장규모는 5,000억 위안 (한화 약 96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유제품 산업은 일찍이 성장하여 품질 위기, 산업 재조정 등 발전단계를 거쳐 성숙단계에 진입했으며, 다양한 유제품 브랜드가 존재함. 그중 이리(伊利)와 명뉴(蒙牛)가 중국 유제품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중국의 유제품 소비 추세는 유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액체유제품]** 액체 유제품은 상온 유제품, 저온 유제품, 유산균음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중 상온 유제품 소비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상온 유제품 판매는 전년대비 0.5% 증가하였음.
 - 저온 유제품의 경우 품질이 향상되고 있지만 판매는 감소했음. 2022년 저온 유제품 매출액은 전년대비 4.9% 감소했으며,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구매빈도 또한 감소하여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고체 유제품(건조 유제품)]** 고체 유제품은 분유, 생크림, 치즈, 아이스크림 등이 있음.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중국 고체 유제품 총 생산량은 188.8만 톤으로 전년대비 5.95% 상승했음. 하지만 분유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세계 농업 브리핑

- 2018년 중국 전체 분유 생산량은 최저 수준인 97만여 톤에 달했고, 2019년에 105만 톤으로 생산량이 다시 상승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음. 2023년에는 중국의 분유 생산량이 110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3%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 **[중국의 유제품 판매 추세]** 중국 내 대형마트에서 액체 유제품의 중요도는 감소하였고, 소형 마트와 온라인 구매 채널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액체 유제품의 경우 소형 마트와 편의점 내 보급률이 각각 48.8%와 23.8%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대형마트와 시장 내 유제품 보급률은 각각 49.1%와 51.6%로 다소 하락하였음.
- 상온 유제품의 판매 비중은 대형마트가 18.8%로 판매 비중이 가장 컸지만 판매액은 전년대비 6.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소형마트와 온라인 쇼핑 채널의 판매 비중은 각각 15.3%, 16.2%이며, 판매액은 전년대비 각각 9.7%, 3.7%로 증가하였음.
- 저온 유제품도 상온 유제품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의 판매 비중이 23.4%로 가장 크지만 판매액은 12.5% 감소했으며, 온라인 구매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중국의 유제품 시장은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여전히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임. <중국 내 수 확대 전략 계획 개요 2022-2035년>에서 음식, 의복 등 필수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농산물과 식품을 공급해야 하며, 유제품 기업들은 정책에 맞춰 소비자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고품질 유제품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중국의 유제품 소비 경로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음. 온·오프라인 판매의 장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을 디지털화하여 새로운 소비 모델로 변하고 있음. 온·오프라인 시장이 융합하여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시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
- 중국 유제품 시장은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였지만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가득함. 신제품 개발, 판매 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상품 개발 및 전략적 판매 방안을 마련한다면 한국 식품 또한 중국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2023.04.27.)



세계 농업 브리핑

2 아메리카

2.1. 미국, 소금 대체재의 사용을 허가하는 FDA 제안 규칙

- FDA에서 제조업체가 품목 표준 (standard of identity)에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에 소금 대체재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칙을 제안함.
 - 이 제안된 규칙은 제조업체가 법규 상으로 품목 표준에 소금 또는 소금물이 포함되어 있는 140개 제품(또는 카테고리)을 만드는데 나트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소금 대체재를 사용하여 성분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음.
- FDA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3,4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음. 이는 미국인을 위한 식이 지침 최신본에서 권장하는 2,300mg을 크게 넘어서는 양임. 이러한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심장병, 고혈압 및 뇌졸중을 포함한 여러가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음. 질병통제예방센터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의 90%와 성인의 89%가 권장량보다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연방 정부는 소금 섭취 감소를 주요 정책에서 우선 순위로 삼았음. 그러나 이러한 연방 정부의 나트륨 감소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불분명함.
- FDA의 로버트 칼리프 국장은 이번 제안된 규칙이 제조업체가 식품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함. 그는 보다 건강한 식품 공급을 창출하는 것은 미국인의 건강을 개선하고 예방 가능한 식습관 질병과 사망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잠재력을 갖는다고 밝혔음.
- 그러나 이번 제안된 규칙은 제조업체가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음. 연방에서 규제하는 표준에 의해 정의된 140개 카테고리의 제품에 대해 소금 대체재를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제안된 규칙이 대체재를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대체재가 좋은지, 최대 나트륨 함량은 얼마인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음.
 - 이번 허가로 인해 제조업체가 실제로 제품을 변경하게 될지는 확실치 않음. 연방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나트륨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거나 자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정책 자체에 요구 사항을 담고 있지는 않음.
- 2020년 후반 FDA는 나트륨 감소를 목표로 하는 첫 번째 정책에서 성분 라벨에서 염화 칼륨을 '칼륨 소금'으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함.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칼륨 강화 성분에 대해 더 소비자 친화적인 라벨링 용어를 원했던 한 청원에 응답한 것임.



세계 농업 브리핑

- 이후 2021년 FDA는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제조업체와 식품 서비스 업체가 따라야 하는 구속력 없는 권장 사항인 자발적 나트륨 감소 지침을 발표함. 그러나 이 지침 역시 구속 사항 없이 자발적인 권장 사항에 그쳤으며 지침을 발표하는데 5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건강 옹호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음.
- 이번 제안된 규칙은 나트륨 감소를 위한 또 다른 단계임. 그러나 대체제 사용 허가가 제조업체가 대체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만한 유인을 제공하는 충분히 강력한 조치인지 여부는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2023.04.04.)

2.2. 미국, 계란가격 상승세 주춤, 인플레이션 전망

-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가정 내 식품소비(Food-at-home prices) 가격은 작년 대비 10.2% 상승하여 전월 11.3%에 비해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였음. 2월 가정 내 식품소비에 대한 식량지수는 1월 대비 0.3%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난 달 기록한 월별 상승률 0.4%에 비해 하락한 수치임.
- 계란 가격은 지난 1월 8.5%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여 월별로 6.7% 하락하였는데, 이는 단백질 가격이 연초 최고치에서 회복하는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줌.
 - 식료품 가격의 상승 속도 둔화는 최근 몇 달 간 전체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궤적을 보이는 것에 동조하고 있음.
 - 2022년 2월 가정용 식료품 가격은 한 달 동안 연평균 8.6%씩 치솟아 전체 물가 상승률 7.9%를 기록함. 이 수치는 8월에 더 높아져 각각 13.5%, 8.3%에 도달하였음. 전체 인플레이션의 경우 지난 6월 9.1%로 정점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전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고 가정용 식품 가격 역시 진정되는 분위기를 띄고 있음.
 - 2월 육류, 가금류, 생선, 계란 가격은 전월 대비 0.1% 하락해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계란 가격도 지난 달 가파른 상승 이후 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하락 추세와 달리 2월 무알콜 음료 가격의 경우 전월 대비 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음. 이외에도 시리얼 및 베이커리 제품 가격이 0.3%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같은 기간 과일 및



세계 농업 브리핑

채소 지수는 0.2% 상승함. 또한 유제품 및 관련 제품 지수는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 가격은 1월 2.4% 상승한 것에 비해 2월 (1%)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 물가 상승의 하향 추세가 소비자 지갑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연방 정부가 최근 불안정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조치를 지속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두 개의 대형 은행이 파산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자 하는 연준의 계획에 대해 시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2년여간 식품 업계를 괴롭혀왔던 인플레이션이 최근 진정되는 분위기임. 그러나 아직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불황 등 다양한 불확실성 요소들이 시장에 잔존해 있어, 식품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2023.04.14.)

3 유럽

3.1. 유럽, 흔들리는 유기농 식품시장과 새롭게 부상하는 PB제품

- **[유럽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감소]**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비용 위기로 인해 어느 때보다 에너지 절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원자재가 상승과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값비싼 유기농 식품이나 브랜드 제품 구매를 지양하고 PB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음.
- **[유기농 식품 시장 매출 감소]** 프랑스에서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유기농 식품의 인기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오늘날 프랑스인의 유기농 식품 소비율은 6%로, 이는 다른 유럽 국가인 덴마크(14%)와 오스트리아(11%)보다 훨씬 뒤쳐진 수치임.
- 실제로 2022년 프랑스의 유기농 식품 유통업의 전체 매출은 2021년에 비해 12% 감소하였음.
 - 지난달 프랑스 유기농 유통업체인 Biocoop은 2022년 영업이익이 14억 유로로, 2021년에 비해 6% 감소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이번년에는 폐업 지점 수가 오픈 지점 수보다 많다고 밝혔음.
- 다른 프랑스 유기농 식품 유통업체인 Naturalia는 2022년 총 매출이 2021년에 비해 7% 감소하였음. Naturalia 또한 영업이익 감소로, 기존매장들을 대상으로 폐점 및 통폐합을 하며 PB제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군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세계 농업 브리핑

- 프랑스 유기농 식품 유통업 3인자인 La Vie Claire 또한 작년 매출이 제작년에 비해 8.5% 감소했다고 밝힘.
- 프랑스 유기농 식품청(Agence Bio)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유기농업에 대해 환경 보존과 생산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공정 거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선호하나 높은 가격 탓에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함.
- [PB제품 구매] 최근 유럽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PB제품을 구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품 브랜드를 기존보다 좀 더 자주 바꾸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고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고, 소량으로 포장된 제품보다는 대량 묶음 제품을 구매하는 등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소비 패턴을 보임.
- 지난해 10월 맥킨지의 설문결과, 유럽시장 소비자의 50%는 더 저렴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PB 상품을 찾았으며, 전체 소비자의 35%는 기존에 이용하던 브랜드를 바꾼 것으로 나타남.
 - 자체개발상품제작협회(PLMA)와 미국 정보분석 기업 Nielsen IQ가 발표한 International Private Label Yearbook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유럽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음. PB제품의 총 매출은 작년에 3,020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1년보다 250억 유로 증가한 액수임.
- 2022년 유통업 PB제품 점유율은 유럽국가들마다 수치가 차이를 보이는데, 스위스는 PB제품이 전체 시장의 51.6%의 판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임.
 - 네덜란드에서는 PB제품이 슈퍼마켓 매출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43.3%, 영국에서는 42.7%, 독일 39.5%, 벨기에에는 37.8%, 프랑스는 31.9%의 PB제품 점유율을 보여줌.
 -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자국 PB제품 점유율은 전년대 비해 증가했으며, 특히 체코 3.5%, 포르투갈 2.9%, 스페인 2.2%, 헝가리 2.2% 등 2021년보다 점유율이 상승하였음.
-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면서, 유럽에서도 K-콘텐츠를 통해 한국문화와 한국식품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음.
 - 유럽 주요 국가에서 한국식품은 특히 세련된 건강식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증가함. 인삼, 쌀과 쌀 가공식품, 고추장, 한식 소스류, 과일맛 주류, 음료, 김, 차 등의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음.
 - 인플레이션으로 외식을 자제하고 집에서 요리하는 이들이 늘면서, 밀키트 제품 및 간편식 수요도 늘고 있음.



세계 농업 브리핑

- 이에 따라, 유럽 주요국의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럽 소비자들의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며, 맛과 질, 가성비를 모두 갖춘 식품으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한류 효과를 적극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진출로 연령별, 계층별 소비층을 공략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2023.04.14.)

3.2. 러시아, 저품질 수입식품 통제 강화 발표

-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가 수입식품 품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음,
 - 미슈스틴 총리는 “최근 서비스 접근 방식이 심각하게 바뀌었는데, 우선적으로 수입되는 식품, 종축군(breeding herd), 종자, 화학 물질의 품질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면서, 저품질 제품, 해충, 질병, 위험한 동식물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의학 및 식물 검역 등 국경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또한, 러시아 생산업체들의 모든 안전 규범 준수에 주목하면서, “생물학적 식품 안전 보장, 호의적이고 안정적인 식물위생 환경으로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동시에 미슈스틴 총리는 무엇보다 국내 생산자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압력을 줄이도록 했음. 그의 말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과 일상적이고 불편한 프로세스들의 자동화를 지속해야 하며,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요구하는 고품질 제품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 특히 반러시아 제재 상황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행정적 압력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물론 모든 절차는 제재 압력의 어려운 여건에서 복잡성에 따라 조정되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일관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 EU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해, 삼림벌채를 국제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수입식품 통제 및 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들은 이를 숙지하고 제품의 품질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음. 러시아에서 인정하는 식품 인증서를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2023.04.17.)